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32호

Thursday, February 13, 2025 A

## 워싱턴지역 경제 탄탄하다

올해 VA 2.4%, MD 2.3%, DC 2.5% 성장

올해 워싱턴지역 경제 성장률이 미국 평균을 능가하며 순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버지니아 대학(UVA) 웰던 쿠퍼 공공서비스 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2025 Virginia's Economic Forecast)에 의하면, 버지니아 지역의 2025년 지역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넬리스트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5년 미국 평균 GDP 예상 성장률 1.9%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센터 측은 "미국 GDP 성장률이 작년 2.5%에서 올해 1.9%로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싱턴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옥채 기자

같은 성장률은 연구기관 무디스 애

2면 '경제 탄탄'으로 이어집니다



버지니아 노퍽의 컨테이너 부두

[버지니아 항만청 제공]

## 종이봉지 10센트 세금 부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투에 10센트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현재 플라스틱 봉지 하나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환경보호를 위해 아예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투 사용에 대해 두배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카운티 의회는 새로운 세금 부과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개인 장바구니 지침

법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고객이 종이 봉투를 원할 경우 혹은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매장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 봉투당 1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한 이트 스튜어트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소매업체가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없으며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이상 방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미 기자

2면 '종이봉지'로 이어집니다

발행인 칼럼

## 도탄에 빠진 한국, 누가 구할 것인가 대통령 놀이 즐길 때가 아니다

한인 동포들은 작년 연말부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불편한 심정을 가누기 힘들다.

한국 정치판은 계란을 포개어 쌓아놓은 누란지위(累卵之危)와 백척의 장대 위에 올라서 위험한 곡예를 펼치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고자 분연히 일어서 합법적인 계엄 조치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 힘도 지리멸렬한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대권 쟁쟁들이 나라 안팎에서 대통령 놀이에 골몰하며 눈물 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년 동안 지속됐던 친중국 정책으로 한국인들은 도탄 지고(塗炭之苦)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진구렁정이애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한국이 자랑하는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 파트너를 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圓圖)의 몸이 돼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계몽령'을 외롭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치판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종북'이 확대돼 '중중'으로 넘어간 상태다.

중국이 한국 선거판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실히 규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도 무감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고 내란죄 혐의를 다루는 법원의 판결이 아직 요원한데도, 우 의장은 스스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이라는 본연의 직책을 망각하고 아무런 권한없이 국가원수 흉내를 내고 있다. 그는 시진핑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해 "한국에서도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인들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 의장은 한국의 비자 정책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할 위치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인으로 뒤덮여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다. 안그래도 대접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각별히 더 챙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을 보듯 뻔하다.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한국은 중국 속국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 영화 속에 그려지는 잔혹한 중국인 이미지가 일상 도처에서 발견될 것이다.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없이 입국한 뒤 무

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경우다.

2023년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 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17%에 이른다.

미국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공산당 장기독재에 염증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전세계로 탈출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가까운 한국이 무비자 시장에 나온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중국인이 불법 입국해 산 임금을 내세워 고용시장을 뒤흔들어놓을 경우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과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지속돼온 친중 정책과 화교 우대 정책으로 반중 정서가 비등한 현실에서 우 의장의 무비자 발언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와 다르지 않다.

한국 청년들이 대통령의 진실과 계몽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천만다행이지만, 아래로부터의 의식 혁명이 토대와 상층부를 바꾸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우리 한인동포의 염원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독재세력과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다.

긴 겨울 속에 산고를 이겨내면, 찬란한 봄 하늘 아래 영롱한 꽃망울을 터트릴테다.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인 김영천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랫폼매매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orld Class Facelift  
**대한민국 안면거상 '명의'**  
"한국인 얼굴형에 가장 특화된 Deep Plane Technique 안면거상으로  
확실하고 영구적인 안티에이징을 약속드립니다"

수술 전 3개월 후 수술 전 6년 후  
[50대 환자 사례] [60대 환자 사례]

2000 CASE  
안면거상  
2000례 이상 단독집도

의학박사 **박준형**  
더플랜싱형외과 대표원장  
안면거상 2,000례 이상 단독집도  
2024 대한민국 안면거상 100대 명의 선정  
2024 대한민국 안면거상 부문 브랜드선호도 1위 수상  
Harvard University T.H Chan 연수

www.theplanps.com  
카카오톡 ID: theplanps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플랜싱형외과'를 검색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길 6 한스빌딩  
일~목 20시~05시 / 금 20시~02시 (워싱턴 기준, EST)  
www.youtube.com/@THEPLANPS  
(유튜브 검색창에 '더플랜싱형외과'를 검색하세요)

안면거상 100대 명의 박준형 원장 집도  
고압산소치료 제공  
건물 4개층 전용 사용  
2024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박준형 의학박사 직접 집도  
귀국 전 빠른 회복을 돕는  
고압산소치료 3회 제공  
4개층 전용 사용하여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된  
VIP급 서비스 제공

#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강 라운드테이블 및 공유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한강 라운드테이블 및 공유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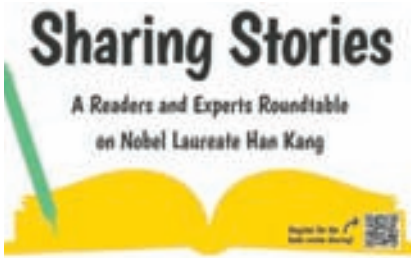
행사는 오는 27일(수) 오후 5시부터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자들이 각자 작성한 독후감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독자가 한강의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의와 영향력에 대해 함께 탐구할 예정이다.

'독후감 공유회'에서는 한강의 작품에 대한 감상평, 경험, 후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해당 세션 참여를 희망하면 사전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행사 당일 현장 낭



독, 녹화 영상 재생 등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선물로 한국 공예 키트가 제공된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는 조지메이슨대학교 박현선, 정영아 교수와 조지워싱턴대학교 임마누엘 김 교수가 참여한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세 명의 한국

문학 전문가가 한강의 작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사회의 모습과 작품에 미친 영향,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가지는 의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통해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독후감 공유회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14일까지 링크(<https://washingtondc.korean-culture.org/en/1128/board/892/read/135562>)를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 해고된 부처 감사국장 소송

### 해고 30일전 연방의회 통보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 부처 감사국장 17명 중 8명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상원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명됐던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톱 스토크(국방부), 마이클 미살(보훈부), 크리스티 그림(보건복지부), 샌드라 브루스(교육부), 필리스 푼(농무부-사진), 래리 터너(노동부), 카텔 리처드슨(국무부), 마이크 웨어(중소기업청) 감사국장이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감사국



장( inspectors general)은 애완권이 아니라 감사권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에게 애완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에 의해 해고 결정 30일 전 연방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상원 인준을 요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해고에도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17명의 감사국장을 해고했다.

이들은 한두 문장의 해고 통지 이메일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수의 감사국장과 소속 직원들을 해고했다.

연방의회는 2022년 대통령이 상원의회 인준을 요하는 감사국장을 자의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 30일 전 의회 통보 법률을 제정했다.

농무부의 푼 국장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불응해 해고 통지문을 받고도 출근해서 5개 이상의 회의를 주재했으나, 농무부는 전산 시스템 접근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사무실 출입증과 컴퓨터와 전화회 회수조치했다.

푼 국장은 농무부에서만 20년 이상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 ▶▶면 '중이붕지'에서 이어집니다

카운티 정부 감사국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의 감시 소홀과 업무의 불성실로 인해 연간 비닐봉지 세금 820만 달러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카운티 의회는 중이붕투 10센트 세금 부과로 얻는 수익을 환경보호 기금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매업체는 육류, 드라이클리닝 용품, 금봉어와 같은 소형 수생생물 등과 같은 부패하거나 원형을 상하기 쉬운 제품을 구매할 때에만 세금부과 없이 비닐봉지나 종이 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신문과 특정 우편물에도 비닐봉투 사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식당에서 남은 음식, 음식 배달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식의 경우에도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10센트 세금을 부과한다.

이 법률을 첫번째 위반할 먼저 경고조치 하고 두 번째 위반 시 벌금 750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 워싱턴 지역 단신

### VA 주지사 중국 AI 답시크 금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중국 AI 답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6)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주정부 소유의 장치와 네트워크에서 답시크 사용이 금지됐다.

영킨 주지사는 "답시크가 버지니

아 주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공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구해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으로 인해 주정부 공무원은 주정부 소유 네트워크와 장치에서 답시크를 이용한 일체의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없다.

### 적설량 최고 11인치

11일(화)부터 12일까지 워싱턴지역에 최고 11.3인치의 눈이 내렸다. 메릴랜드는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가 11.3인치, 라 플라타가 8.7인치를

기록했다. 버지니아는 스테포드 10.5인치, 스프링필드 7.5인치, 센터빌 7인치, 애넌데일 6.7인치, 레이건공항 6.4인치, 매나사스 6.4인치가 내렸다.

### "카운티 공무원도 구조조정해야"

팻 헤리티 VA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

에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유일하게 공화당 소속이다.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페어팩스 카운티도 연방정부처럼 주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정부 프로그램도 많지만,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위해 각종 재취업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면 '경제 탄탄'에서 이어집니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는 각각 2.5%와 2.3% 성장이 예상된다. 센터 측은 워싱턴 지역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CPI 물가 상승률(2.6%)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워싱턴 지역의 고용성장률은 상당히 둔화돼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의 작년 고용성장률은 1.7%였으나 올해에는 0.71%에 머물러 순고용 증가치가 3만개 정도로 예상했다.

낮은 고용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이상의 고용 회복세의 영향으로 워싱턴 지역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센터가 예측한 버지니아의 올해 예상

실업률은 3.4%,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전국 예상실업률은 4.1%다.

버지니아는 헬스케어(5070개 순증)와 소매(4700개 순증), 전문서비스(4400개 순증) 분야의 고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문 서비스 업종과 테크날리지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1%를 차지해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보 서비스를 제조업, 광업 등과 함께 고용시장 한파 영역으로 분류했다.

정보 서비스는 141개 순감소, 제조업은 847개 순감소, 광업은 67개 순감소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2026년 워싱턴 지역 경제는 다소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14일(금)	39~27	☀	17일(월)	34~18	☀
15일(토)	40~36	☁	18일(화)	34~21	☀
2월 13일(목)	50~28	☁	16일(일)	57~25	☁
			19일(수)	32~25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불체자 단속 실적 낮아서...

## ICE 고위 관리 강등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체포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최고위 당국자를 직무배제하고 강등조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ICE 직원 3명은 12일(수) 언론을 통해 “리셀 허트 ICE 산하 추방작전처(ERO) 부처장과 피터 베르그 부처장이 강등됐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실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ICE는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책임감 있는 문화가 매우 부족했다”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정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높은 단속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등된 관리들은 미국내 이민단속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예고했다. ICE는 직원들의 휴가를 금



지하고 주7일 근무를 독려하며 체포 및 추방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백악관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칼럼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은 “전국적으로 25개 거점 사무소가 일일 평균 75명씩 1200-1500명을 체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스티븐 밀러 백악관 보좌관은 “현재 체포 수준은 바닥 수준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불체자 체포 건수가 세 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백악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톰 호턴 ‘국경 차르’는 “현재와 같은 체포작전으로는 목표를 채우기 힘들다”면서 “구금됐던 일부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유를 조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심지어 ICE 내부에서는 데이터에 올라 있는 불법체류 사건 800만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ICE는 이민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 심리가 예정된 불체자들을 체포했다가 석방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체포한 불체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대규모 작전으로 인해 이미 예산이 고갈된 상태라, 호턴 차르와 린지 그래험(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OMB) 국장 등이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ICE는 영리 교도소 등을 포함해 일일 평균 불체자 4만명을 구금할 수 있지만, 호턴 차르는 1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ICE 체포작전에 동원된 인력은 5500명이지만, 이를 세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옥채 기자

# ‘찾아가는 공사관’

## 버지니아 한인회 등 협력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가 12일 ‘찾아가는 공사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미국사무소(소장 강임산)는 버지니아 한인회 등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서 공사관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공사관측에서는 올해 한국어 수강중고교생을 위한 무료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사관 프로그램은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 버지니아한인회, 워싱턴한국학교협의회(회장 정광미), 한국어채택학교 교사협의회(회장 사무엘박) 등과 함께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작년이 프로그램이 동포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만큼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사관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 사이에서 그 가치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 내부고발자 해고논란

## 연방정부 용역업체 부즈 알렌 해밀턴

워싱턴 지역의 대형 연방정부 용역업체 부즈 알렌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이 내부고발자를 해고해 논란에 휩싸였다.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한 부즈 알렌 해밀턴은 포춘 500대 기업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다.

이 회사와 한 하청용역 계약을 맺고 연방재무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최근 연방효율성부(DOGE)가 연방재무부의 결제시스템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즈 알렌 해밀턴은 “이 직원이 재무부 관계자에게 왜곡된 문서를 제공했다”면서 “부즈 알렌



해밀턴은 DOGE에 대한 위협적인 평가를 수행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하청업체가 제공한 문서에는 근거 없는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승인받지 않은 의견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업무 지침과 배치된다”면서 이 직원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해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직원은 DOGE가 연방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회계 관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같은 경고 보고서 초안이 부즈 알렌 해밀턴의 주간 정보 회람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에 전달됐다.

해당 계약업체는 “모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심지어 ‘읽기 전용’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재무부의 차관보급 공무원 데이비드 레브릭이 지난달 DOGE 측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놓고 충돌한 후 갑작스럽게 사직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연방정부 예산집행 결제 시스템으로 연간 수조달러 지출이 이뤄진다.

김윤미 기자

# 눈방학 많아서 학사일정 조정 필요

올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눈 휴교일로 인해 지역 교육 당국이 보충수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DC 공립학교는 눈 휴교일이 하루만 더 늘어나더라도 6월 네번째 주 보충수업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DC 공립학교의 여름방학 예정일은 6월17일이었으나 눈 휴교로 인해 현재 6월20일로 미뤄진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방학일이 이를 정도 더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조만간 보충수업일을 지정하고 방학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예비해둔 눈 휴교일 4일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서 교



사 휴무일로 지정했던 14일(금)을 등교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눈으로 인해 휴교한다면 휴무일이었던 3월17일을 등교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방학일은 6월18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라우던 카운티는 아직 예비해뒀던 눈 휴교일을 초과하지는 않은 상태다. 알렉산드리아 시티는 예비해둔 눈휴교일이 고갈될 경우 학교를 휴무하지 않고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올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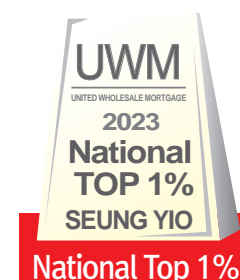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WWW.UMNLOAN.COM

#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4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 (VA, MD,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 여객기 사고 희생 한인 변호사, 가족 애도 속 영면

## 여객기 사고 희생 한인 변호사 가족 애도 속 영면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희생된 한인 변호사가 가족과 동료들의 깊은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다.

12일 한인사회에 따르면 세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 변호사의 발인은 지난 9일 워싱턴DC 인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건홍 테네시주 클락스빌한인회장은

“어릴 적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늘 부모를 생각한 막내딸이었는데 가슴이 먹먹하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세라 부모와 두 언니가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주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은 서상표 총영사 명의로 장례식에 근조 화환을 보냈다.

이에 앞서 국내 180개 한인 단체 등을 총괄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의 서정일 회장은 지난 1일 유족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미주총연은 ‘애도의 글’ 성명을 통해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한인 강세라 변호사의 장례식장에 놓인 화환. (클락스빌한인회 제공)

“장래가 촉망되던 네분의 한인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동포로서 안타까움을 갖는다”며 “유족들의 슬픔에 함께하며, 아픔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함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항공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항공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유족과 동포사회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의 월킨스 스테이크로프 로펌 소속인 강 변호사는 동료와 함께 캔자스주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

다. 그는 밴더빌트대와 펜실베이니아대(유엔) 로스쿨을 나와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로스쿨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아 최우등(슈마콕라우데)으로 졸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한인 희생자는 총 4명이다.

한인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나 한과 그의 어머니 진 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이 희생자 67명에 포함됐다.

김지혜 기자

## 20대 한인 자매 수표 위조 혐의 체포

### 보모로 일한 집에서 훔쳐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도

보모로 일하는 집에서 훔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20대 한인 자매가 기소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시 경찰국은 한주영(26), 한지영(24)씨 자매를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 부부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 훔친 부부 명의 수표에 허위로 5084달러를 기재한 후 입금했다는 것이다. 지역 매체인 WRAL의 보도에 따르면 피



해 부부는 한씨 자매를 보모 구인 전문 웹사이트 ‘내니 레인(Nanny Lane)’을 통해 고용했다.

해당 웹사이트에 언니는 보모 경력을 5년으로 기재했고, 자신이 간호조무사라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신청

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자신을 간호학과 학생으로 보고 경력은 2년이라고 소개했다.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동생에게는 신분 도용 혐의 2건을 비롯해, 허위 사실을 통한 재산 취득 공모 2건과 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언니는 허위 사실을 이용한 재산 취득 공모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자매는 모두 관련 변호사를 고용했다.

김경준 기자

## H-1B 사전등록 3월 7일 시작

### 3월 24일까지 진행, 31일 통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3월 7일부터 시작된다.

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5~2026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신청의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7일 정오(동부시간 기준)에 시작돼 3월 24일 정오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215달러다.

USCIS 온라인 계정이 없는 청원 고용주의 경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USCIS 계정을 가진 고용주는 기존

계정으로 H-1B 사전등록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의 H-1B 신청자들의 사전등록을 같은 계정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다.

오는 3월 24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USCIS 측은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학위 이상 2만개)에 해당하는 H-1B 신청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I-129가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김은별 기자

## LA시 연방지원금 수천만불 중단 위기

LA시와 LA경찰국(LAPD)이 연방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LA시가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며,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LA시의회의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과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을 돕는 행위를 금지당하며, 시의 자원도 사용될 수 없다. 동시에 LA시는 2017년부터 시행된 관련 거주법(SB-54)에 따라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난 5일 파멜라 본디 신임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법 집행 활동을 방해하는 주 및 로컬 정부에는 더는 연방 지원

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하며 바있다.

즉, LAPD의 단속 협조 요청 거부도 방해 행위로 간주해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시가 올해 받을 예정이었던 연방 보조금 수천만 달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LA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예정된 지원금에는 국토 안보 프로그램 660만 달러, 범부 지원금 230만 달러, 경찰관 20명 채용 지원금 95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원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 제 세이들 대변인은 “LA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는 LA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지원

금이 끊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시는 자랑스러운 이민자 도시이며, 모든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원금이 끊기면 경찰 수사와 치안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LAPD 관계자들은 여러 연방 테스트 포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으로부터 경찰관들의 급여, 초과근무수당, 장비, 차량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특수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도 갖고 있어, 이번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LAPD의 수사 및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들은 향후 LA시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 불체자 단속에 국세청 요원 동원 시도

### NYT, DHS 내부 메모 입수 불체자 고용 사업체도 조사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당국이 국세청(IRS)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크리스티 뉴 국무안보부(DHS) 장관은 스킷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IRS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IRS에는 약 10만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요원은 약 2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네바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취임 첫날 IRS 요원 채용은 즉시 중단했고, 이들을 해고하거나 국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IRS를 해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인력 감축과 이민당국에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김은별 기자

##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승경호 추천 매물		
<b>태권도/운동 도장자리</b> 버지니아 맥클린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모두 꾸며져있는자리 5000 SF	<b>제과점 자리</b>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제과점 자리 3000 SF	<b>Beer and Wine Shop</b> VA 알링턴, 35만불, 주1만8천불수입 2400 SF, 렌트 \$7200, 조건부임대계약
<b>자동차 메카닉샵</b> 버지니아 페어팩스 자동차 메카닉샵 운영허실분 판매가 10만불, 월5만매출, 차고3개	<b>리 커</b> 워싱턴 디씨,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b>MD 통고메리카운티, 50만불, 주2만불수입</b> 렌트 \$7200+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b>컴퓨터 수리점</b> 버지니아 애쉬번 데이터센터주변, 10만불 연매출 20만, 장비와 인벤토리 포함	<b>K- HOT DOG 집</b> 버지니아주 포트맥밀, 인기 많은 집, 25만불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b>상가 임대수입</b>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b>창고 임대</b> 버지니아 애쉬번 창고 임대 3900 SF, 로딩닥 있음	<b>스시 식당</b>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VA 페어팩스 카운티 맥클린, 비엔나 지역 전문

MD 통고메리카운티, 베데스타, 락빌 전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 이스라엘인 65%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 지지”

이스라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이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대인과 아랍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구상에 반대한다고 답한 이는 16%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이스라엘 연립정부를 지지하는 우파 성향 응답자의 88%가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찬성이었고 야권 지지자 가운데서는 51%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 35%는 유대국가 이스라엘이 ‘강에서 바다까지’ 전부 통치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꼽았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뜻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의 구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이 별도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였고, 어떤 해법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0%였다. 다만 가자지구 전쟁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응답자 73%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교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답은 13%에 불과했다.

# 동포청, 재외동포 TV 운영한다

이상덕 청장, 올해 추진 업무 공개 “한민족공동체 역량 확대 집중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1일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며 한민족공동체 역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매진하겠다고 재외동포 TV 운영안 등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11일(한국시간)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재외 동포 정책 강화체계 확립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 생활 등을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청장은 “K-컬처 등 한류가 지구촌에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동포사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동포청 설립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상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재외동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86만에 달하는 국내 귀환 동포와 2007년 이후 파악조차 안 하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포청은 올해 주요 행사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5월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

4월에는 애틀랜타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연중행사 ‘한상넷’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에 비즈니스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모국과 동포사회 간 소통 플랫폼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TV(가칭)’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2023년 6월 동포청 설립 후 동포사회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된 동포 지원 사업의 첫 번째로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그는 “편의성을 대폭 높인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더 확대하고 지난해 연말에 인천공항에 개설한 ‘통합민원실 분소’의 서비스도 확대한다”며 “올해는 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연준 향해 금리 인하 또 요구

상호관세 발표·연준 의장 하원 출석 앞두고 “금리 인하돼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금리는 인하되어야 한다”며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11~12일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날 오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연방의회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직전에 나온 언급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전날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강한 성

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2%)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입장 고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29일 연준이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준은 은행 규제와 관련해 형편없었다”고 연준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 미국 CPI 예상 웃돈 3% ... “금리인하 멀어지나” 시장 출렁

(1월)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를 기록했다. 예상을 웃도는 수치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미 노동부는 12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2.9%)

은 물론 시장 예측치(2.9%)보다 높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5%에 달하면서 시장 전망치(0.3%)를 0.2%포인트 상회했다. 물가가 이전보다 더,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4%를 기록했다. 이

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등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난해 12월(3.2%)보다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다음 달 18~19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

다. 제롬 파월 Fed 의장도 전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더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전이다.

관세 여파가 올 3월 이후 본격화하면 미국에서 물가 급등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CPI 발표 직후 0.1%포인트 오른 4.64%까지 치솟았다.

다우존스·S&P500·나스닥 등 뉴욕증시 선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Fed에 재차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금리는 인하되어야 하며,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적용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 정진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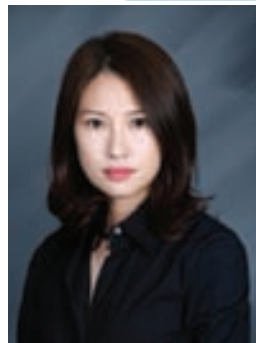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트럼프 옆에 두고 연방정부 때린 머스크... 트럼프는 맞장구

트럼프 집무실서 언론과 질의응답 “손 놓고 있다가 우리는 파산할 것” 트럼프 ‘4명 관둬야 1명 채용’ 서명 “가자 갖는 건 미국의 권한” 발언도

“매일 치르는 항문 검사 같습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정부 구조조정 메스를 대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자신과 DOGE를 향한 세간의 날카로운 시선을 이렇게 비유하며 불만 섞인 감정을 토로했다.

이날 백악관에 깜짝 등장한 머스크는 ‘결단의 책상’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약 30분간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머스크가 지난해 11·5 대선 이후 언론과 대면하고 여러 질문에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다섯 살 아들 ‘엑스 에시 에이 트웰브(X Æ A-12)’를 목말 태운 채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나타난 머스크는 월권 및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자신의 역할을 설

명했다. 머스크는 “국민은 대대적인 정부 개혁을 위해 투표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다가 우리는 파산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지출 삭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머스크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연방정부의 방만 지출 사례가 나오자 “미국 정부의 낭비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 정부 기관에 물러나는 직원과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4대 1로 맞추고 DOGE와 협력해 정부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 각 기관장은 기관별로 배치된 DOGE 팀 대표와 채용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이날 깜짝 등장한 머스크의 아들 엑스는 친진난만한 모습으로 시중 분위기를 밝혔다. 엑스는 트럼프 옆에 바짝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거나 코를 후비기도 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DOGE의 모든 일

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결 및 전후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지난 4일 가자 구상을 공개한 이후 아랍국가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가자 지구를 매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사들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가자를 가질 것이고,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어떻게 가자를 가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국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당초 요르단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요르단 등 주변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트럼프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압둘라 국왕은 이날



벽 대신 천... 가자는 지금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자발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에 벽을 대신할 천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리가 담당 할 수 있는 일은 암에 걸 리거나 매우 아픈 가자지구 아이 2000 명을 최대한 빨리 요르단으로 데려오

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워싱턴=김영구 특파원, 임성영 기자

## FBI, 케네디 암살 신규 문건 2400건 확인

NARA로 이관해 기밀해제 작업 지난달 23일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10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신규 문건 약 2400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FBI는 새로 찾은 문서들에 대한 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으며 해당 자료들은 과거 케네디 암살 관련 파일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들이었다고 설

명했다. FBI는 기밀 해제 과정을 거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FBI는 신규 발견 문서들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1960년대에 암살된 인물 세 명과 관련한 정부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국가정보국장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두 사람의 암살 건에 대해서는 45

일 이내에 각각 기록 공개와 관련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이 암살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연방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의 가족과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영남 기자

## 교전 재개 대비하는 하마스... “휴대전화 끄고 숨어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과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아랍권 신문 아사르크 알아우사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 지휘관은 이스라엘군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은신할 것을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19일 발효한 6주(42일)간의 휴전 1단계가 끝날 때쯤 이 같은 지시가 하달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배신’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안에 민감한 하마스 조직원들은

전쟁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삼갔지만, 휴전이 시작된 뒤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마스 소식통은 “가자지구 여러 곳에서 돌무더기나 건물 잔해 아래에 숨겨진 카메라, 도청장치 등 다양한 전자기가 발견됐다”며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휘관 등 공습 표적을 특정하는 데에 이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 매체는 “지난 이틀 동안 이스라엘군이 휴전 합의를 어기고 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를 가자지구 상공에 잠시 간 띄웠다”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암살 작전을 펴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 ‘넛자림 회랑’이

나 가자지구 북부를 재점령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의 귀환을 늦추고 민간인에게 발포하는가 하면 연료와 텐트 등 구호품 전달을 가로막는 등 휴전 합의를 어겼다고 15일로 예정됐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전을 끝내고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 주변에 병력을 증강하며 양측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美 철강관세, 다른 관세에 추가 개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기로 한 가운데 캐나다 및 멕시코의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가 시행되면 해당 관세율이 50%로 오른다고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들 매체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다른 관세 위에 부과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보편 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간 유예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통상, 이



민 및 마약 문제 대응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 협상에서 보편 관세 부과가 추가로 유예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전면적으로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對)미국 철강 수출 1~2위 국가다. 캐나다산 알루미늄은 지난해 미국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00, 알바니로브부터 1000번번(한미)에서 1000번번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첼러리(한미)와 센터빌/첼러리(한미)에서 각각 5000번번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외외고 불어고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3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rlawpllc.com

두근두근

# 2월의 선물박스

기간 1.30.2025-2.26.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2월 내 설치

쿠쿠 베스트 상품 특별 할인



일시불  
**\$300**  
할인

렌탈료  
**6개월**  
할인

제품 구매에 따른 쿠쿠만의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52시간 묶여 납품일 직전에도 일하다 집에 간다

(주당 근로시간)

**‘반도체법’ 무산 위기에 현장 한숨**  
AI반도체 경쟁...트럼프는 관세 예고  
한국, 세계 반도체 고객 다 놓칠 판

“인공지능(AI) 반도체 키운다면서요. 정치권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이 일정대로 물건 찍어내는 공장인 줄 아나 봅니다.”(시스템 반도체 기업 대표 A씨)

“지금 우리 반도체 R&D는 대당 수백, 수천억원짜리 장비를 (제한된) 시간에 쫓겨가며 돌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가 만능은 아니지만, 주 52시간제로 해도 문제없다? 그건 거짓말이죠.”(전직 삼성전자 기술 임원 B씨)

‘반도체 관세’라는 미국발(發) 퍼펙트 스톱이 몰아치고, 중국의 굴기에 해외 언론도 ‘한국 반도체가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한다. 그러나 국내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발의 8개월 만인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를 겨우 넘었지만, 반도체특별법(제정안)은 잠자고 있다. 이 법엔, 성과 기반 전문직엔 근로시간·임금 규제를 하지 않는 해외의 ‘화이트칼라 이그제션(white collar exemption)’을 국내에선 ‘반도체 R&D 직군’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탄력근로조차도 근로일과 시간을 2주 전에 확정해야 해 글로벌 경쟁 중인 반도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빠는 머스크, 아빠 친구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질의응답하던 중 옆에서 코를 만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다섯 살 아들 엑스를 쳐다보고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엑스가 트럼프의 책상에 코박지를 뒀다”며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 영상은 1880년부터 역대 미 대통령들이 사용해 ‘결단의 책상’으로 불린다. [로이터·연합뉴스]

A대표는 “지구 반대편 고객사 요구에 맞춰 실시간 설계를 수정·검증하는데, 납품일 직전에도 우리 시간 규제 때문에 일하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독일 고객사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가 노동시간 규제를 받는다는 걸 이해 못 하고, 중국 경쟁사들은 고객사가 일정을 얼마나 당기든 다 맞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생사가 달린 일이라 ‘R&D만이라도 규제를 면해 달라’

는 건데, 국회는 ‘장시간 일을 시키려는 수작’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우려대로 ‘주 52시간 예외’가 연구직의 습관적 장기 노동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업이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 수급이 부족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사내 공과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 10곳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양성에 시간이 걸린다.

반도체는 8대 공정마다 세부 영역 전문자가 필요해 분야별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기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다. 삼성 반도체에서 31년간 연구했던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 석좌교수는 “핵심 연구원은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원할 때 쉬고 싶어 한다”며 “어떤 인력인데 (아무나) 추가 투입하면 된다는 건 이 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자동차·로봇·데이터센터 등의 핵심 부품이어서, 칩 공급과 결합 수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이 순차적으로 밀려 손해가 불어난다. 삼성 반도체 전직 임원 B씨는 “장비를 다루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여기에 52시간까지 맞춘다 보면 고객 대응이 한 없이 늦어진다”고 말했다. 대당 1000억원 넘는 장비로 장당 1000만원 넘는 웨이퍼를 다루는데,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를 투입하는 모험을 할 수도 없다.

중국 기업들의 속도는 다르다. 춘절(중국 음력설) 연휴이던 지난 1일, 화웨이는 자사 클라우드에서 딥시크의 AI 모델 R1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R1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 개발됐는데,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칩을 못 쓰는 화웨이가 자체 개발 칩에서 R1이 동일한 성능으로 구동되게끔 엔지니어링 작업을 마친 거다. 사우이치이나나모닝포스트(SCMP)는 “화웨이와 중국 협력사가 연휴 내내 야근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설계 담당 연구원은 “동료들과 연휴 내내 카톡에서 딥시크 얘기를 했는데, 화웨이가 이걸 바로 적용한 걸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다.

AI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고객과 수량·스펙을 긴밀히 사전 협의하는데, 기술의 속도만큼 고객의 마음도 급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이고 빠른 HBM 출시”를 재촉했고 이에 최태원 회장은 6개월을 당기겠다고 했다.

한국이 규격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양산해 업계를 선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일 반도체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D램 메모리 물량 공세로 한국을 위협한다”며 “1980~90년대 한국이 일본 메모리를 몰아낸 사건이 이제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메모리도 AI 기술에 맞춤형·선도형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에 추격당할 위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인다지만, 중국(220%)에 비교가 안 된다. 업계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당장의 투자와 기술력 향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중·일에 이어 대만까지 수천억~수십조원 보조금을 기업에 토탈 지급하는데, 한국은 지원은커녕 R&D 걸림돌도 못 치우고 있다.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임원은 “인재 경쟁전이 심한 이 바닥에서 핵심 연구원은 회사의 자산인데, 흡사시켜서 회사를 떠나게 하겠냐”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연구개발 시간만큼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서현 기자

## 작년 ‘수출 톱10’ 대기업 비중 36.6%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대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수출 톱10’ 기업의 비중은 6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천8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1년 전보다 11.6% 늘었고, 중소기업도 4.7%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0.7% 감소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에서 전년보다 수출이 줄었지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자통신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보다 3.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 또한 66.5%로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 2015년 66.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산업별 수출을 보면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광제조업 수출이 10.2% 증가했다. 도소매업

은 1.8%, 기타 산업은 3.4% 각각 수출이 줄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0~249인(-1.2%)에서 수출이 줄었으나 1~9인(8.1%), 250인 이상(10.3%)에서는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6천321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대기업 수입은 2.7%, 중소기업 수입은 4.3% 각각 감소했고 중견기업 수입은 5.7%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수출액은 1천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5.9% 각각 수출액이 증가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0.5% 줄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8.1%로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았다.

## 중국 CATL, 홍콩증시 상장 추진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중국 CATL(寧德時代·닝더스다이)이 홍콩 증시에서 상장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선전 증시에 상장된 CATL은 전날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CATL의 이번 기업공개(IPO) 규모는 최소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전했다. 이럴 경우 2021년 62억달러를 조달한 중국 쇼츠(짧은 영상) 플랫폼 콰이쇼우 이후 홍콩증시 IPO 최대어가 된다.

CATL은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73억유로 규모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CATL은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와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중신건투증권(CSC Financial), JP모건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UBS 등도 상장 추진에 참여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처에 따르면 CATL은 지난해 3분기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 2위 BYD의 두 배가 넘는다. CATL은 테슬라를 비롯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맞춤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부
8.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 개인스빌 싱글 레이크 비즈니스 플플랜내 \$1,060,000  
방4, 약4.5, 차고, 4433 sqft, 2004, 0.3acre, 풀러, 스크램
- 앞디싱글 \$1,250,000  
방5, 약4.5, 차고, 4,630 sqft, 2016,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집 같은

**Open House**  
2/16 (SUN) 1PM-4PM  
현물리 다운 \$779,000  
방4, 약3.5, 차고, 2,900 sqft, 2005, 전부 업그레이드 현대유아, 1st owner, 내부인부 집 관리 항상 최고 학교 점, 코스코, 50/28, Dulles Airport  
25180 WHIPPOORWILL TER, CHANTILLY, VA 20152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스빌 상업용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13<sup>TH</sup> - FEB. 20<sup>TH</sup>, 2025**



**Hi** 海底捞调味料  
**HAIDILAO Hot Pot Set**  
**하이디라오 뽕꺾세트**



DUAL POT + CHOPSTICK (2 PAIRS) + HOT POT SOUP BASE (4 PKG)  
 + SWEET POTATO VERMICELLI (WIDE/REGULAR) +  
 DIPPING SAUCE (6 PKG) / 69.13 OZ/SET

~~REG. \$31.99~~

**\$1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보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27가지 야채 68가지 허브 및 해초 29가지 곡물과 버섯

###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과체중이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이상행동 교사도 업무 못뻐...“학교 옮길때까지 기다릴뿐”

**임용 뒤엔 정신건강 파악수단 없어 돌봄 뒤 안전귀가 보장할 규정 미비**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12일 교육계에선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학생 귀가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부모 사이에선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은 폭력성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도 교단에서 배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다. 교육청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해 심의해 직권면직·휴직 등을 조치할 순 있으나, 실제 심의 건수는 거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제 교사가 학교를 옮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로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

다”(서울교사노조)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교 교사는 “동료 교사가 ‘도정당하고 있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지만 수년 뒤 학부모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징계받았다”고 전했다.

임용시험 때 치르는 인적성 검사 빼곤 정신 건강을 파악하는 수단도 딱히 없다.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은 신체검사 중심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는 7335명이다.

학교 돌봄은 늘었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규정·인력·시설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보호자가 어디에서 학생을 인계해야 하는지, 학교가 어떻게 확인·관리할지 세부 규정도 없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에 가야 할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와 행인이 데려다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청원에는 “초등학교 교내



대전 지역에 눈비가 내린 12일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담장에 추모객이 놓은 조화가 젖지 않도록 노란 우산이 펼쳐져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 하루 만에 사전 찬성 인원(100명)을 채웠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인 학교 운동장·복도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A씨(48)가 휴·복직 신청 당시 제출한 우울증 진단 내용이 21일 만에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확보한 휴직 당시 진단서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加療)를 요함”이라고 적혀 있다. A씨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했다.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12월 초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혔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작성했다. 병원 측은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잘못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민자·이후연·이보람 기자, 대전=최중권 기자

## 하늘이 아버지 “사전에 흥기 준비한 계획살인, 강력처벌 원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하늘양은 부검 결과 날카로운 흥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해당 여교사 A씨(48)의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병원 진료기록 등을

압수한 뒤 자료를 분석해 계획 범행 여부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가해교사 A씨가 학교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흥기를 구입한 점과 돌봄교실에서 제1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

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교사 체포영장은 상황을 보가며 집행하기로 했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소를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가 사전에 흥기를 준비한 것으로 봤을 때 계획

살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늘이 부검에 동의한 것도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이가 아니었다더라도 다른 어린 학생이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늘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초등학교를 위해 먼저 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하

늘이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다시는 하늘이 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은 문제 교사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 등을 담은 법을 말한다.

김씨는 학교 측의 아쉬운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가해 교사의 휴직과 복직 과정, 업무 분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하늘이 사태를 막지 못한 학교 측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전=김병현·박진호 기자

##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305곳 중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한 291곳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를테면 잠실 대장주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에 대한 갭투자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자치



서울시는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는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렵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첫 지정

했다. 이후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 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속속 지정하면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1%인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이 중에서 13.32㎢다.

조정안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신통구역도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며 “압구

정·여의도·목동·성수동 정비사업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통기획 14곳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이후 1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해제를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위해 ‘핀셋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추진동력이 됐다. 하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한 이후호가가 뛰기도 했다.

한은화 기자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창문  
WINDOW  
SPECIAL**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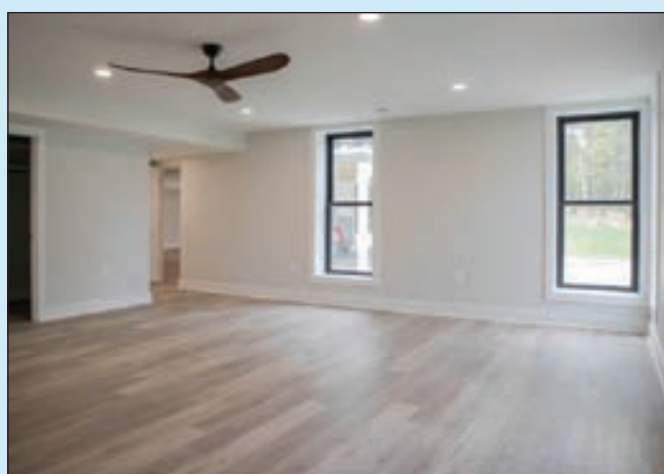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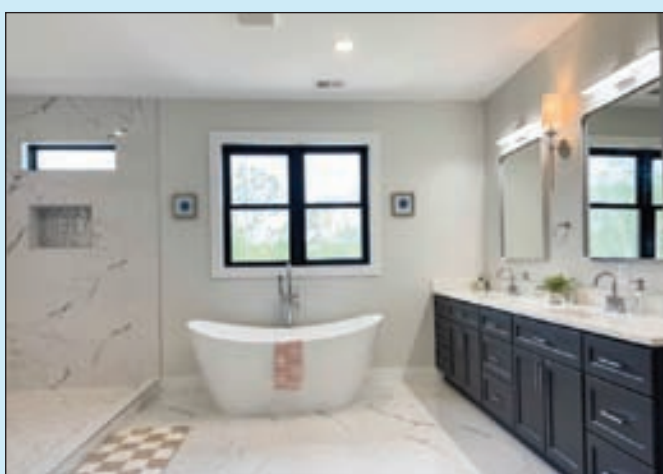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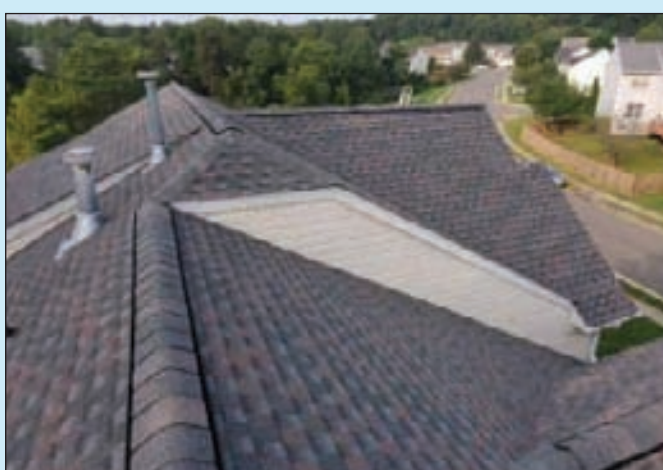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김여정 남편은 180cm 미남 … 총정치국 부부장으로 근무”

“2014년 9월 김여정 가족과 인사들은 김일성대 다닐 때 만난 듯 신년행사때 여자에, 딸과 나이 비슷”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대 중반 때 이미 기혼이었고, 최근 공개 석상에 함께 등장한 아이들도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는 고위 탈북자의 증언이 나왔다. 김여정의 결혼과 임신, 출산을 둘러싼 각종 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직 북한 고위 관료가 실제 목격담을 전한 건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에서 약 20년 간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14년 9월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의 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여정의 가족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1988년생으로 당시 26세였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한 ‘금고지기’ 전 일촌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다.



지난달 1일 조선중앙TV에 나온 남매 아이와 이동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그는 당시 장인의 소개로 김여정 등과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김여정의 남편은 군복 차림에 키가 약 180cm인 미남이었고, 총정치국 조직부 군단지도와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장인어른이 갖고 있던 김여정의 결혼식 사진을 그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사진 속의 남편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여정은 남편을 6개월짜리 김일성종합대학교 특별반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경축 행사에서 김여정과 함께 등장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남자아이는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는 경우 내가 아는 김여정 딸의 연령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축공연에 참석한 김여정이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손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이틀남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다. 여자아이가 더 커 보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3일 “이미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국정원의 관측 등에 따르면 김여정은 최소 두 차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다음 달(2015년 5월)쯤 출산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여정의 남편에 대해서는 “김일성대 동기생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위해 김여정이 방문했을 때 만삭이었고, 같은 해 출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파악한 상황이 맞다면 현재 김여정의 자녀는 10세와 7세인 셈이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제주 앞바다에서 또 어선 전복 ... 5명 구조, 5명 수색 중 12일 제주 서귀포시 표서면 남서쪽 12km 해상에서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10명이 탄 어선 2066재성호(32t)가 전복됐다. 구조 신호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오후 10시 현재 한국인 선장과 베트남-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5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5명을 수색 중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엔 높이 3m의 파도가 일고 있다. [사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추계위 결과로 결정 못해” “로드맵 말만, 안 지켜왔다”

(복지부)

(의대교수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추계위에서 합의를 해도 또 누가 뒤집을 수 있다면 못 믿게 된다.”(최창민 전국의로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1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사 측 참석자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해 각각 내놓은 발언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할 단초로 꼽히는 추계위의 역할 설정을 두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그런데 추계위의 위원 구성과 권한에 대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경실 단장은 “(의정 간) 가장 큰 갈등 사안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추계 결과만 가지고 바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 외에도 의료 이용자나 국민들도 의견을 내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창민 위원장은 “추계위에서 합의를 해도 또 (상위 기구로) 올라가서 누가 뒤집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의료계에) 있다”며 “의료개혁 로드맵 등의 (정부 정책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안 지켜진다는 결

많이 봐왔다”고 발언했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그리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발표 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이 얼마나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정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대응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정당하다’고 답한 비율도 12.8%에 그쳤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보건의료 정책은 환자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대다수는 논의에서 소외당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남수현 기자

## 세계는 지금 반도체 국가대항전, 한·미 기업간 동맹 맺어야

대한상의, 경제원로들 초청 간담회  
“이 기회에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분야에서 (한·미)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가 나아가길, 경제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면서다.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선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전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경제 원로들과 함께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이 전 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 정책 사령탑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들은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에 닥친 ‘4개의 폭풍’으로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경쟁,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모여서 대격변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라며 “기업이 실현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총

체적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도 겨냥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반도체는 지금 국가 대항전”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지난 몇 년간 대만의 TSMC에 비해 뒤지고 있는데,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산업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른 정국 안정을 1순위로 꼽았다. 불확실성 제거와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 정치 복원을 통한 법과 제도의 적기 입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혜택을 받아왔던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정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며 “정치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대 대응전략에 대한 조언도 쏟아졌다. 정 전 국회의장은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는 분명 약재이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강점 분야를 키워서 미국 등 각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열 기자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임플란트 Implant
- 응급환자 Emergency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민주당, 상처받고 떠난 이들 포용 못하면 대선 승리 장담 못해”

## ‘통합’ 외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헌법이 어떤 것이냐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갈등 해결을 공부하겠다”며 유럽으로 떠났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들고 돌아온 키워드는 ‘통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소식에 놀라 미국행을 취소하고 12월 5일 급히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도 부유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정치적 리더십이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이끌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라며 “국민통합이란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의 하나로 최근 ‘2단계 개헌론’을 꺼냈다.

통합은 조기 대선 확정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국민에게 내놓는 약속이자,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다.

김 전 지사는 “상처를 받고 당을 떠난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조기 대선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거듭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을 어떻게 봤나.

“탄핵 과정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신뢰를 충분히 줬느냐 한다면 아쉬움이 있다. 민주당만 뚫고 쳐다보고 국민이 ‘저당이 유능하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포

민주당, 대선에서 늘 간신히 승리  
인재 모으며 국민에 신뢰 얻어야

헌법 77조 비상계엄권 등 우선 삭제  
이재명 대표에도 개헌 나뉘게 없어

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진영이 극우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영향도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하나의 연대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디고 부족했다.”

—조기 대선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지난 총선 공천 과정 등에서 많은 상처를 주

고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총선에서 4% 포인트 차도 안 나는 득표로 국민의힘과 의석수 차를 크게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에서 맘이 떠난 이들이 조국혁신당 같은 대체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은 전혀 다른 국면이다. 민주당에 애정이 남은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안아야 이길 수 있다. 민주당은 늘 (대선에서) 간신히 이겼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 또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구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선거 때 왕창 사람들을 받는다고 되는 일이다.”

—조기 대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본격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데.

“탄핵이 인용 후 대선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모든 개헌 사항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대선 때 공약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두 번 (개헌을) 공약했다. 계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 사항들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을 ‘양치기 소년’처럼 보는데, 최소한의 개헌을 해 내면서 2단계 개헌을 약속하면 신뢰를 줄 수 있다.”

—최소한의 예를 든다면.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는 66조는 삭제하는 게 맞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 대통령을 3권 위에 군림하는 사람처럼 규정한 조항이다. 비상계엄권을 규정한 77조도 삭제하고 전시, 준전시 해 당하는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만드는 게 낫다. 헌법 전문엔 5·18 광주 정신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인데.

“이 대표도 개헌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한 거 같다. 전반적인 개헌 사항을 다 논의하는 건 부담이겠지만 원포인트 개헌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나뉘게 없다. 개헌을 위해 이번 계엄과 탄핵 과정을 되짚는 것은 탄핵 완수에도 도움이 된다. 각당이 개헌을 두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진다. 각당이 함께 2단계 개헌을 약속하면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부터 논의하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으로 국민을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으면서 개헌을 들고 나오면 누가 봐도 정략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던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개헌과 선거제 개편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봤다. 2003년엔 중·대선 거구제 등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2006년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좌절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대통령 4년 연임’과 ‘총선-대선 동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권은 외면했다.

김 전 지사는 “노 대통령이 남긴 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내 평생의 목표는 국민통합입니다’라는 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시작한 갈등과 분열이 국가의 성장동력마저 끌어내리는 요즘, ‘노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지사직을 잃은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다.

대선 도전 의사를 묻자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힘을 보탬 것”이라고만 말했다.

박유미 기자

## 오세훈 나선 개헌 토론회, 여당 의원 절반 몰렸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개헌해야 내치는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을”

“국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많은 여당 의원을 본 건 처음이다. 대선 출정식 같았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찾은 국민의힘 조순 의원이 한 말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차 참석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 시장이 계엄 사태 이후 국회를 찾은 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원택 서울대 교수,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권영세 비대위원장, 오 시장, 국민의힘 윤재옥·김기현·신동욱 의원. 전민규 기자

대부분 참석했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했다. 강당의 300석 좌석이 가득 들어찼고, 강당 밖 복도도 북적였다. 오 시

장은 주요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했고, 행사장을 찾은 지지층은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을 남기고, 내치(內治)는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정하고 거두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경찰·자치권을 지자체에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탄핵 정국에 입을 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선 “일부 재판관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바람직한 처신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히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은 아쉬워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발의한 ‘명태군 특별법’에 대해선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은 빠른 수사를 통

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질문에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냈고, 전혀 변화 없다”고 했다.

이날 개헌 토론회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황 명예교수는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데, 지방정부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없애고 지역별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수준까지 (개헌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여당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뒤 개헌을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국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증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꾸기

후년과 내후년

“내후년에는 1위가 목표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야심 찬 포부를 밝혔...

2025년을 기준으로 2027년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내후년’을 올해의 다음 다음 해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7년이라 쓰고 내후년이라고 설명하신 안 된다. 내년(올해의 바로 다음 해)은 2026년, 후년(올해의 다음 다음 해)은 2027년...

지나간 해의 경우 ‘작년→재작년→재재작년’으로 나타낸다. 각각 1년 전, 2년 전, 3년 전을 말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칼럼

멕시코기와 소리없는 아우성



임상환 OC주재담당·국장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청마 유치환 시인의 작품 ‘깃발’의 도입부다. 필력이 깃발은 예나 지금이나 그 존재 자체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연방 정부의 고강도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깃발이 있다...

중남미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워낙 많기 때문인지 시위 현장에 나부끼는 깃발은 주로 멕시코기다...

어떤 이는 멕시코기를 두고 ‘미국에 살긴 하지만, 미국에 동화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고강도 불법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공감을 드러내는 이들은 ‘문화적 유산과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

다’란 말로 멕시코기를 옹호한다. ‘만약 중국 정부가 현지의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방을 할 경우, 시위대가 성조기를 들지 오성호기를 들겠는가’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시위 현장의 멕시코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개 불체 단속에 대한 찬반에 따라 갈리는 편이지만, 깃발의 의미와 그 존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최근 불체 단속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는 한 네티즌은 ‘시위 참여 경험 중 대부분은 좋았지만, 멕시코기가 주로 눈에 띄는 것은 시위를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에 부정적인 것 같다...

이 글을 올린 이의 요지는 불체 단속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성조기가 없는 가운데 멕시코기만 존재하는 시위 현장을 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공감을 표시했고, 어떤 이는 ‘성 패트릭 데이’에 아일랜드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누가 뭐...

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들며 멕시코기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멕시코기에 관한 논쟁은 불체 단속에 대한 찬반 입장이 명확한 이들 사이에선 승패가 갈릴 만한 이슈가 아닐 뿐더러 논쟁을 벌일 의미도 없어 보인다...

최근 부에나파코 고교의 교사 보조원은 소셜 미디어에 멕시코계의 화염에 휩싸인 멕시코기 사진을 배경으로 ‘만약 너희가 멕시코기를 든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들(멕시코기)을 불태울 것’이란 글을 올렸다...

멕시코계가 다수인 부에나파코고 약 100명 학생은 학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치환 시인이 맞았다. 깃발은 소리없는 아우성을 발산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우성이 사실은 깃발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고

과연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박철웅 일사회 회장

밥 에드워드와 스콧 암스트롱은 저서 『The Brethren』을 통해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연방 대법원의 내부를 조망했다...

이 책에는 판사 간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법적 원칙과 정치적 압력이 얽힌 복잡한 과정이 담겨 있다...

반면 진보는 변화와 평등,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며 정부의 개입과 복지 확대를 지지한다...

를 구하고 협력한다. 한국의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와는 다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보 문제에서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념적 차이가 좌우로 인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선포하여 국정과 국격을 실추시킨 내란 우두머리로 낙인찍고 탄핵 찬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판관의 판결이 사상적 이념을 떠나 정치적인 압력과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Immigration: 영주권/시민권, E2 비자/투자이민,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종교비자/이민,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대정부계약/입찰구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임대차, 부동산 투자 개발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17) 친노조 대통령의 변신

# 참다 참다 공권력 발동...“선무당 노무현, 노동자 잡는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노동정책을 펼치고 싶어 했는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당연히 친노조였다. 노동 변호사였고, 대통령 당선도 노조 세력들의 지지 덕분이 컸다. 돈 잘 버는 변호사 활동을 접고 정치하기로 결심한 배경도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부터 항상 노동자 편에서 온 전임 대통령 김대중을 훨씬 능가했다. 김대중이 펼친 노동정책 초점은 노동권 강화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약자인 노동자가 기업 또는 정부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사회적 합의로 노사 문제를 꾸려가고자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 노총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 2003년 2월 13일 노 당선인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반면에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동주의자였다. 제노나 법 이전에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 하지만 당선자 신분으로 조흥은행 노조 간부들을 찾아가 격려하며 지지한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국제입찰로 신한은행에 이미 매각 결정이 난 공적자금 투입 은행 안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즉석에서 “그러겠노라”고 언약까지 했으니...

### 재계 “시장경제는 끝났구나” 비명

노동계가 노무현을 지지하는 기세는 대단했다. 반면에 재계는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언행에 기겁했다. “이런 대통령 아래서 시장경제는 끝났구나” 하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다. 노무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노동계에 비해 경제계가 세다. 향후 5년간 이 같은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법과 원칙을 바꿔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 (2003년 한노총·민노총 간담회)”

갈수록 돈이 올라갔다. 노조의 파업이 비록 불법이라 해도 경찰이 법을 내세워 막거나 진압해선 안 된다는 건가. 많은 사람이 귀를 의심했으나, 바로 그 말이였다. 노동 변호사 시절, 파업 시위에 앞장섰을 때의 언행을 그대로 재연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노무현의 이 같은 노조관은 계속된다. 초대 부총리 김진표가 불법 노조를 겨냥, “법과 원칙 아래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가 졸지에 체면을 구겼다.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뉴스로 나갔는데, 청와대는 즉각 “참여정부는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을 추구한

다”며 부총리 발언은 오보라며 잡아버렸다. 대통령이 취임 초 노동부 장관 권기홍에게 한 당부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부조차 경제부터 생각하는 자세를 지니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노무현의 노동자에 대한 애정 표현은 노골적이거 짐이 없었다. 이쯤 되니까 당시 정부 관료나 기업들, 그리고 노조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지침은 급기야 공권력 발동의 동결로 이어졌다.

“공권력을 함부로 발동해선 안 됩니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노조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똑같이 불법으로 다스려서는 곤란합니다.”

서슬이 퍼했다. 어떤 노사분규든, 경찰이 “공권력 발동” 운운했다가는 해당 경찰서장은 당장 목이 달아나는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공권력의 “공”자를 꺼내는 것도 쉬웠다. 노조는 살판이 났다. 걸핏하면 파업이었다.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는 판에 거리낄 게 없었다. 노조가 분규 중에 아무리 두드려 부수고 탈법·불법을 저질러도 기업은 속수무책이었다. 분규 기업이 112를 돌려 공권력 출동을 요청해도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업이 알아서 노조와 대화하고 타협하세요.”

노동정책의 시곗바늘은 거꾸로 돌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극에 달했던 노조 파업이 진정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까지 어렵사리 회복되어온 공권력이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에 의해 하루아침에 맥을 추지 못하게

### 불법에도 대화·타협 강조 노무현 화물연대 파업 계기법·원칙 선회 “노조의 정치투쟁 보호할 수 없다”

된 것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일어난 가장 안타깝고 잘못된 변화였다.

그러나 노조 대통령 노무현이 집권 3개월이 못 가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노조 문제는 두고두고 노무현의 사고 체계를 휘청거리게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첫 번째 계기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화물연대 파업을 겪으면서 노무현은 몹시 속이 상하고 실망스러웠다. 노동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그러한 노동 세력에 대해 이전 “No”를 선언하는 시간이 다쳐온 것이다. 노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화물연대에 강경 진압책을 쓰고 만다.

설상가상이었다. 철도 파업과 전교조 문제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노무현의 노사관은 크게 흔들렸다. 비로소 대통령의 말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관계는 이미 결론이 나서 영미식으로 가야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국제 수준으로 확보될 것이다.”

“노사관계는 결코 일부에 의해 국가 경제가 희생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석달만에 “노동시장 유연성” 꺼내

최소한 노무현의 입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처음이다. 해고 자유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용어라 해서 참여정부 들어서는 금기시

온 말이였다.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뜰을 들이던 끝에 결국 ‘법과 원칙’으로 선회한다. 철도 파업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 간부 121명을 무더기로 직위 해제시켜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전교조까지 나섰다. 대통령은 단단히 화가 났다. 지금까지 해왔던 친노조 발언들이 반노조로 방향을 바꿨다.

“최근 일부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당당히 말할 필요가 있다. 과거 노동운동은 생존권이나 사회 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졌다.”

“노조 지도부의 정치 투쟁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조가 없어야 한다. 철도 파업 현장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철도 노조가 기존 합의 사항을 뒤집은 때문인 만큼 법과 원칙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이쯤 되자, 아래 사람들도 즉각 달라졌다.

“불법은 초기에 제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국가의 법체계가 바로 선다.”(법무부 장관 강금실)

“최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부분까지도 노조가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행동에는 바로바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다.”(청와대 대변인 윤태영) 대통령을 필두로 지금까지 해온 말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젠 노조 측에서 들고일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만 친노동이다. 과거 정부보다 더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이남순 한노총 위원장)

“노무현 정부는 말과 행동이 헛갈린다. 철도 파업에 공권력이 그처럼 빨리 투입될 줄 몰랐다. 노조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터무니없다.”(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참여정부의 노조에 대한 입장은 출범 초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노무현 대통령, 2003년 8월, 언론간담회)”

어느새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법과 원칙이 회자되고 있었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 배후조종 혐의로 민노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노무현과 노동계의 대립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선무당 노무현이 노동자 잡는다... 노동 문제를 어설피게 아는 노 대통령이 뒤틀리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노동운동을 매도하고 있다.”(민노총 성명) 노무현은 이제 노조를 비판하면서 전혀 삼감이 없었다.

“명분만 있으면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자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발언)

“한국은 노조 쟁의와 파업이 많아 경제적 손실이 크다...최근 노조가 귀족화, 권력화하는 부분이 있다. 소수 대기업 노동자 권의 중심의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같은 달, 중소기업인 오찬 연설)

### “노조가 귀족화·권력화” 비판까지

민노총은 급기야 대통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결국 다른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기업의 압력에 못 이겨 노동자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노무현 대통령은 노조를 배신했다.”(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편승한 것이며, 노동운동이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큰 착각이다. 민노총의 강성 투쟁을 시종에는 그들만의 잔치판이라고 빗대는 목소리도 많다.”(김대환 노동장관 2004년 11월 기자간담회)

이상의 인용들은 노무현과 노동계의 충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당시의 실상이 어땠는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노동계와 대통령이 이처럼 격렬하고 치열하게 맞섰던 적이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제임 중에 가장 친노조적이었던 반면 노조 대통령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노무현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따사움을 심하게 벌였던 셈이다.

브라질의 톨라 대통령이 노조 출신이다. 그런 톨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동계에 등을 돌리자 브라질 민노총은 톨라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그에 대한 톨라의 답변은 간단했다.

“나는 이제 혼자야 아니다.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I'm not single now. I have to feed my people.) 노무현이나 톨라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동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이장규·손병수·고성표·박유미 기자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시 설**

**정치가 제 역할 못하니 거리가 들끓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개신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측이 부산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이들은 금남로 등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 인원은 1만 명으로 탄핵 반대 구심점으로 떠오른 한국사 일대 강사인 전한길씨도 참여한다고 한다.

이에 매주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있는 광주비상행동은 이번 주엔 참석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정치권에도 참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 측은 “내란 집단의 난동을 그냥 둘 수 없다. 세이브코리아 예상 인원의 두 배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장소가 인접해 있고 시간대가 비슷해 자칫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다. 하지만 장외에서 세 대결을 하는 듯한 형국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엄정한 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광장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외의 의견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정치권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는 장외 강경 세력에 포획된 상태다. 지난주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엔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법 저촉 우려로 그 자리에서 애국가 1절을 불렀다. 비상계엄과는 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지자는 잃기 싫으니 어정쩡한 자세로 끌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장외 대결에 뛰어들 태세다. 한편으론 특정 세대를 자극하면서 편 가르기를 시도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청년층이 가담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하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어제 박 교수는 교육연수원장직을 사퇴했다. 실력과 비전, 정책으로 지지층을 확대하기보다 반대파는 아예 배제해야 한단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이례서는 심리적 내전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폭력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과 관용, 승복의 미덕이 발휘돼야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 집회를 하더라도 철저히 법을 지키고 평화롭게 해야 한다.

정치권은 과도한 장외 세 대결을 조장하거나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도 집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말 광주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충돌 우려 여당은 강경파 눈치, 야당은 세대 갈라치기 논란**

**“일본 밀어낸 한국 반도체, 중국에 당할 수 있다” FT의 경고**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맹주다. 1980~90년 차간계임을 거치며 일본을 밀어내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물량과 저가 공세를 시장을 장악했고, 기술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할 국내의 각종 지원과 압박, 규제 완화는 미진하다. 치열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가시화하며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맹추격은 또 다른 위협이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듯 파인셀타입스(FT)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몸집을 불려 가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몰아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도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을 제쳤던 한국의 성공 공식을 중국이 답습할 것이라 지적이다.

FT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80%가량 장악한 DRAM 시장에서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5%를 기록했다. 올해는 1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산 저가 DRAM이 쏟아지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익은 악화했다.

딥시크 인공지능(AI)의 성공 등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속도가 붙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의 기술격차도 줄고 있다. FT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고가 제품 시장에서는 미국 마이크론, 저가 제품 시장에서는 CXMT의 위협에 끼여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모두 떨어지는 ‘넛 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지만 극복을 위한 대응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리더십 공백 속에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시설과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산업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다. 52시간 예외조항을 뺀 채 합이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이른바 그저 생색내기용 입법일 뿐이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시장에서 밀려나는 건 순식간이다. 만만치 않은 대내외 환경이지만 기업은 기술개발과 투자에 더욱 매진해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위기에서 벗어나 기회로 만들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자칫하면 한국과 대만에 밀려 40년 간 후퇴를 경험한 뒤 ‘반도체 부활’에 총력전을 펼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뒤집기는 성공할까**

**정호식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서부전선이상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EM 레마르크는 제1차 세계대전 독일군 학도병인 주인공이 전사한 1918년 어느 날 군 보고서 기록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다. 독일어 원제도 ‘서부엔 별일이 없었다(Im Westen nichts Neues)’다. 전쟁에서 한 젊은 병사의 죽음은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무시될 수 있음을 압축한 문장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밝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한 줄 인식이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으로서 한 줄 변론이자 탄핵심판의 직무 복귀 전략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군인이 국민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라고 지난 11일 긴 설명도 내놨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합법 계엄’이란 초기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계엄=내란’ 등식을 ‘탄핵=내란 공작’으로 뒤집어 거대 야당에 역공하는 적극적·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 신호이기도 하다.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모른다”며 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검찰의 핵심 공소 사실을 현재에서 직접 부인한 게 대표적이다. 오히려 “계엄 해제 후 민주당의 탄핵·내란 공세가 정권 찬탈용 내란이자 정치공작”이란 주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즉각 효과를 봤다. 지난 8일 대구 탄핵 반대 집회(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엔 계엄 이후 최대 군중인 5만2000여 명이 운집했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기점으로 야권 탄핵 찬성 집회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반면, 윤 지지층이 대결집하는 현상은 물밑에서 5~6월 장미 대선을 준비하던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적지 않게

당황하게 했다. ‘윤 대통령 복귀를 대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길 법하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이 보수·진보, 개인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여론에 휘둘릴 정도로 녹록한 인사들이 아니다. ‘탄핵=내란 공작’이란 전략 전환은 현재 심판은 물론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 1심이 본격화하는 데 따른 위기감 때문일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었다던 그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 무장 군인 1605명, 경찰청·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강압했다(경찰 공소장). 윤 대통령도 ‘계엄하 경비·질서유지’ ‘부정선거 점검 차원’이라며 목적은 달리 주장하면서도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 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

**“야당이 내란 프레임 만들어내” 윤, ‘탄핵=내란 공작’ 역공 시도 계엄을 소설로 뒤엎긴 힘이어**

도의 폭동’(대법원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판례)인지 현재와 법원의 판단 난감했다.

지금까지 현재 증언을 뜯어보면 윤 대통령의 ‘야당 내란’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윤 대통령 고교 선배뿐이다.

이 중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직무실 원탁 위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적힌 쪽지들이 널려 있었다”고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김 장관 지시를 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시인했다.

종반전으로 치닫는 탄핵심판에 사실과 증거 대신 공작설·음모론으로 일관하 다가 윤 대통령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다. 5120만 국민이 목격한 계엄을 이제 와서 장작이나 소설이라고 뒤엎을 순 없다.

사회부장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a href="http://www.joongang.co.kr">http://www.joongang.co.kr</a>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a href="http://ad.joongang.co.kr">http://ad.joongang.co.kr</a>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a href="mailto:sarangbang@joongang.co.kr">sarangbang@joongang.co.kr</a>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a href="http://www.joongang.co.kr">www.joongang.co.kr</a>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a href="http://www.joongang.co.kr">www.joongang.co.kr</a> 日本経済新聞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 12박13일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7-3/24 7박8일 \$3190+항공  
 페루 일주 3/23-3/29 6박7일 \$2990+항공  
 북반구 특선 남프랑스 4/14-4/20 6박7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1차 **마침**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4/22-5/2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4/30-5/6 6박7일 \$27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5/5-5/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6/3-6/11 8박9일 \$56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어&한국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북기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7/1-7/4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북기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공포함)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사막)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던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1차 04/15~04/25 **마침**  
 2차 04/22~05/02  
 3차 06/17~06/27  
**3세대가 함께하는 투어**  
 영어&한국어 가이드  
 4차 09/16~09/26  
 5차 10/14~10/24  
 6차 10/21~10/31  
 7차 10/28~11/07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제주(옵션)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3세대가 함께하는 투어 영어&한국어 가이드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제주(옵션)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연합상품**

3박 4일 일출발 <b>서해안</b> \$849+항공	4박 5일 화출발 <b>동해안</b> \$999+항공	3박 4일 <b>동경</b> \$1149+항공
6박 7일 일출발 <b>제주+동해</b> \$1599+항공	9박 10일 일출발 <b>전국일주</b> \$2199+항공	3박 4일 <b>오사카</b> \$1149+항공
		5박 6일 <b>동경&amp;오사카</b> \$18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 여 \$1660  
 •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나트랑/달랏	대만	싱가폴
3박 5일 \$490+항공 출발: 각주목요일 왓포사원, 클로세움스, 피타야 아시아, 산호세,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박사원 코끼리 트레킹, 악어농장 백민반바위공원, 태국독산물	3박 5일 \$690+항공 출발: 각주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각주 일요일 마블아운틴, 호이안, 투분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극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각주 수요일 퐁탄아트 갤러리, 나트랑 대성당 아시아, 세일링 클럽, 혼츨 포나기르 사원, 아이리조트 스파 달랏 아시아, 달랏대성당 비오디이1 공전, 린푸옥사원	3박 4일 \$690+항공 출발: 각주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아시아, 서문경거리, 태로산원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원거리	3박 5일 \$850+항공 출발: 각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월드, 핸드스 웨이 브릿지, 하치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성극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출발: 3/20, 4/3, 4/10  
 5/1, 5/8, 5/15  
**\$199**

**당일 투어 체리 브로섬 런치 크루즈**  
 3/27, 4/2 **\$189**  
**벚꽃길 투어** 3/28, 4/3, 4/4 **\$45**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 동계시즌 출발 보장 \* 당일관광 (수요일만 출발 가능)

<b>미동부</b>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플레츠버그/뉴욕 로맨틱시티 겨울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b>뉴욕/나이아가라</b>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키아파트 스위트 특선(옵션)	<b>뉴욕</b>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사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b>서부관광</b>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00+항공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출 여행	<b>서부 4대 캐년</b>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캐나다 북기 4박 5일 \$1190+항공
--	---	--	---	---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LOTTE <sup>PLAZA</sup>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 인플레이션을

#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FEB. 13th - FEB. 20th, 2025



### ★ 고수들의 선택 ★

# CJ 바베큐양념 스페셜

## KOREAN MARINADE SAUCE SPECIAL



CJ

코리안 바베큐 소스(소갈비/소불고기/닭, 돼지갈비/닭돼지 매운 불고기)

Korean BBQ Marinated Sauce (Kalbi - Style Marinade Perfect for Ribs / Bulgogi - Style Marinade / Sweet & Savory Marinade Perfect for Chicken & Pork / Hot & Spicy Marinade Perfect for Chicken & Pork)

# 2 FOR \$ 7.00

840 G

판매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2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1 Ridgeway Hill Dr, Sterling,  
VA 20155

Charlottesville, VA  
3900 Chestnut Creek Ln,  
Charlottesville, VA 22913

Charlottesville, VA  
13925 Meadowchase Dr,  
Charlottesville, VA 22913

Annandale, VA  
12201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rlington, VA  
61501 Parkwood Forest Plaza,  
Arlington, VA 22204

Herndon, VA  
410 Wilson Street,  
Herndon, VA 20120

Ellicott City, MD  
89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0

Catonville, MD  
467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0

Rockville, MD  
1921 Wile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addy Street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February 13,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1, 2, 3 디뮤지엄 10주년 전시 '취향가옥'은 대림문화재단 소장 미술작품과 디자인 가구를 마치 가상 인물의 집 공간처럼 전시한다. 4 2023년 '디파인 서울' 아트&디자인 페어에서 집 내부처럼 꾸며진 빈트갤러리 부스. 5 미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호르헤 파르도 개인전.

## 거실·식당·침실 집 같은 미술관으로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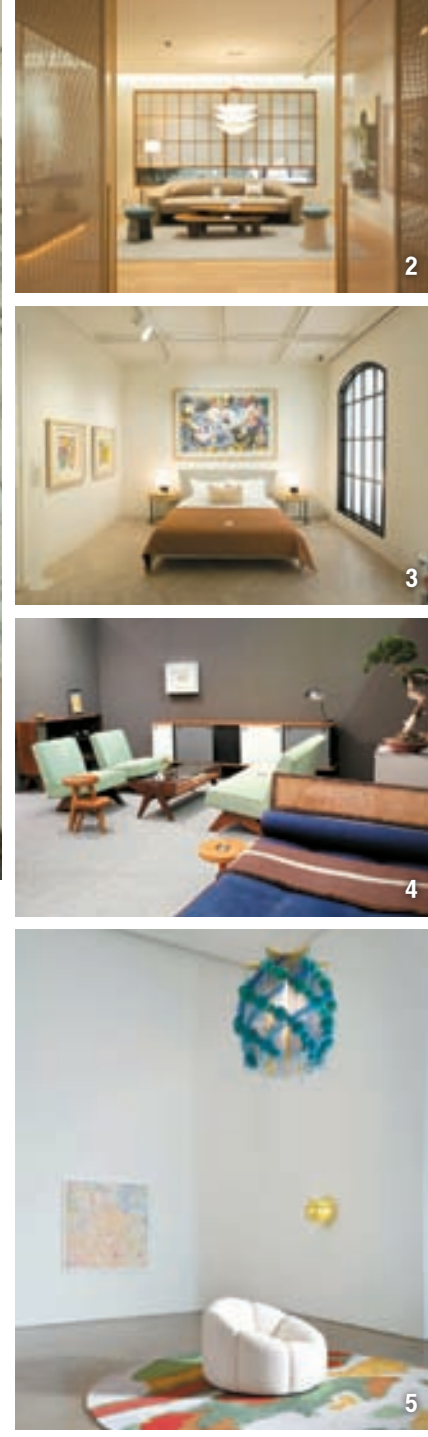
"집은 삶의 보물 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말처럼 집이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의 가치관·경험·취향·미적 감각을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5월 18일까지 진행 중인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 개관 10주년 전시 '취향가옥: 아트 인 라이프, 라이프 인 아트'가 내세운 모토이기도 하다. 김환기·백남준·파블로 피카소 등 거장을 포함한 미술가들의 작품과 장 프루베, 핀 울 등 이름난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함께 선보이는 전시다.

관람객들은 마치 안목 있고 재력도 엄청난 사람의 실제 집에 초대되어 구경하는 것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미술관의 3개 층을 거실·식당·부엌·침실·화장실 등을 모두 갖춘 3개의 집 내부로 변신시켰기 때문이다.

M2층에 있는 '스플릿 하우스'는 티 소틀리에인 50대 여성과 영상 감독인 20대 아들의 집이라는 설정이다. 티 소틀리에의 공간에는 다실이 마련돼 있고 맞은편 복도에는 김환기의 거대 추상화

두 점이 걸려 있다. 식당에는 박서보의 단색화가 걸려 있고, 침실에는 건축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명이 있다. 그녀의 아들인 20대 영상 감독의 공간 속 벽장에는 유머러스한 아트가 즐비하다. 거실에는 심래정, 아오카비사야 등의 애니메이션풍 회화가 걸려 있다.

**취향알리기 "이건희 컬렉션 공개 전환점"**  
사실 이들을 포함해 3개 '하우스'의 주인들은 다양한 취향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가상의 인물들이다. '집'에 배치된 70여 명 아티스트의 300여 점에 이르는 작품 대부분은 디뮤지엄을 운영하는 대림문화재단의 소장품이다. 그간 대림문화재단 소장품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흥미롭다. 문소영 기자

» 3면 '집 같은 미술관'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p>1</p> <p><b>\$1,150,000</b>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p>	<p>2</p> <p><b>\$1,300,000</b>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박물관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p>	<p>3</p> <p><b>\$850,000</b>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p>	<p>1</p> <p><b>\$630,000</b> Sykesville 타운홀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홀.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p>	<p>2</p> <p><b>\$985,000</b> N. Potomac 싱글홀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p>	<p>1</p> <p><b>\$1,200,000</b> 워싱턴 디씨 SE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p>
<p>4</p> <p><b>\$1,900,000</b>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p>	<p>5</p> <p><b>\$2,300,000</b>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p>	<p>6</p> <p><b>\$2,200,000</b>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p>	<p>3</p> <p><b>\$1,025,000</b> N. Potomac 싱글홀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p>	<p>4</p> <p><b>\$1,325,000</b> 포도팩 싱글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욕</p>	<p>2</p> <p><b>\$1,150,000</b> 워싱턴 디씨 NW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p>

# 집에서 5피트 내 불붙을 물건 없애야

## 산불 발생 시 주택 화재 예방 방법

### 5피트 방어 공간 확보하면 생존율 6배 높아져 낙엽·나뭇가지 꼭 관리... 대피 때 거라지 달아야

2018년 북가주 붓 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 파이어는 패러다이스 마을의 95%를 태웠다. 산불이 사실상 마을 하나를 태운 일은 처음이었고 그만큼 충격이 컸다. 7년이 채 되지 않아 LA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산불이 나도 가주의 잘 훈련된 소방관이 주택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예전 같지 않다. 1990년대 이후 가주 주택의 40%는 산불의 위협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주거지의 확대와 기후 변화, 산불의 양상은 소방 시스템의 역량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산불에서 홀로 살아남은 주택이 내화 물질 등 방화 설비를 갖췄다고 화재가 됐지만 모든 주택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 화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의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자갈로 둘러싸는 것이 산불 대비는 아니라고 말한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산불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기 하지만 불길을 옮기는 요소를 최소화해 참사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화재에 강한 주택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전문가들이 우선 꼽는 것은 방어 공간이다. 이 개념은 가주 소방당국이 산불 발생 시 주택을 방어하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한 방어 개념이다.

방어 공간의 유용성은 2022년 마리포사 카운티에서 발생한 오크 파이어

에서 증명됐다. 당시 방어 공간을 확보한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생존율이 6배 더 높았다. 콜로라도주는 이미 이를 법제화해 HOA(Home Owners Association, 주택소유자협회)가 산불이 번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게 했다. HOA는 나무 울타리나 데크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고 마당에는 식물이나 나무뿌리 덮개 설치만 규정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방어 공간 개념을 주택에 적용하면 불뚱이 날아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집이나 별채의 5피트 안에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씨가 지붕과 크롤스페이스의 통풍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불이 집으로 옮겨붙는 가장 큰 원인은 불씨다. ‘비즈니스와 주택 안전 보험 연구소’의 로이 라이트 최고경영자(CEO)는 “불씨는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정도 크기로 1마일에서 2마일까지 날아간다”고 말한다. 불씨 중 하나만 집 근처에 떨어져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씨로 인한 화재를 막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집 주변 5피트 경계에 가연성 물질을 없애는 것이다.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60%~90%는 5피트 이내에서 발생한다. 5피트 이내의 가연성 물질 제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불이 지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산불이 주택 지역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집 안팎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줄이는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지붕선 근처의 나무를 자른다.

▶ 마른 잎이 모이는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흙통을 덮개로 덮어 잎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운다.

▶ 지하 공간에 불씨가 들어가지 않게 덮개가 있는 통풍구를 설치한다.

▶ 나무 울타리가 집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리세이즈 파이어의 경우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울타리가 불을 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뿔감 역할을 하는 가연성 도어매트와 현관의 빗자루, 가연성 실외 가구를 없앤다.

▶ 집 벽의 아랫부분 6인치를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 불연성 재료로 한다. 터마이트도 막으면서 불에도 강하다.

5피트 밖에 있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땅의 수분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하지만 키가 큰 식물과 떨어트리는 것이 좋다. 땅에 가까운 가지는 자르고 떨어진 잎과 가지, 타기 쉬운 물건을 치워 불이 올라오지 않게 한다. 특히 사이프러스와 대나무는 쉽게 불이 붙는다.

화재 전문가들은 집에서 5~30피트 떨어진 지역을 1구역으로 부른다. 이 구역 내에서 잔디밭은 괜찮지만 자갈이나 벽돌로 통로를 만들면 불이 번지는 위험을 줄인다. 또 울타리와 창고, 야외용 가구, 놀이 시설 주변에 가연성 물건이 있으면 치운다. 프로판 저장 탱크는 집에서 최소 10피트 밖에 둔다. 장작 등 나뭇더미는 방향과 상관없이 집에서 10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집에서 30~100피트 떨어진 곳은 2 구역으로 화재 방어 구역 밖으로 여긴

다. 이 구역에서는 마른 풀과 식물을 없앤다. 식물을 심으면 불이 잘 안 붙는 종이 좋다. 2구역 밖에 있는 3구역은 접근로다. 불씨가 떨어져도 주민과 소방관, 응급팀이 오가는 지역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대신 동선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라지도 신경 써야 한다. 대피할 때 거라지 문을 열어 놓았다가 불이 쉽게 옮겨붙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해 전기가 끊기면 거라지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다. 북가주 마린 카운티 소방국의 산불 전문가 토드 랜도는 “전기가 차단돼 문을 열지 못해 거라지 안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전기가 끊기면 대피할 때 거라지 문을 닫기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배터리에 연결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 무굴 천문학의 테마파크, 잔타르 만타르

무굴 제국의 천문학은 중세기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을 이은 이슬람 천문학과 인도의 브라하무타에서 시작한 힌두 천문학을 융합 발전시킨 결과였다.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해 정확한 역법, 해상 무역을 위해 정교한 항해용 천문표가 필요했다. 천문학은 제왕의 학문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식인 프라였다.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웹이 현대 우주론의 새 지평을 열었듯이, 우수한 관측기구는 천문학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무굴에 속한 암베르 왕국

의 자이싱 2세(재위 1699~1743)는 ‘측정 도구’라는 뜻의 잔타르 만타르를 북인도 일대 5곳에 건설했다. 뉴델리·마투라·우자인·바라나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자이푸르다. 완전히 사라진 마투라를 제외한 4곳은 15~20개의 천문 관측 기구들을 모아 비슷한 형식의 천문대이다.

1733년 완공한 자이푸르의 잔타르 만타르(사진)는 별 위치를 측정하는 자야 프라카슈 등 19개의 기구를 건설했다. 궁궐 정문 앞의 이 왕실 천문대에 23명의 천문학자가 연구에 종사했다고 한다. 특히 라구 삼랏 안트라라는 지구 회전축과 평

행하게 기울어진 27도 빗변을 가진 세계 최대 해시계다. 27m 높이로 ‘위대한 도구의 왕’이라는 이 기구는 2초 단위까지 측정할 만큼 정교하다. 서로 다른 경사도를 가진 12개의 라시발야 안트라라는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집합 기구다. 여러 모양의 기구들을 활용해 일출·일몰 시간, 지역별 방위각 등 새로운 천문표(zij)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자이싱 2세가 출간한 ‘천문 가이드북’에는 이곳의 데이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관측기구들은 원통형·



반구형·미끄럼틀형 등의 석조 건축물들로 그 자체만으로 흥미로운 공간을 이룬다. 독창적 기구들을 전시하여 과학 입국의 상징성을 과시했던, 세계 최초의 천문 테마파크로 더 큰 가치가 있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 길로우 프라이어 에이전트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GROUP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승욱**  
연방세무사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장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 1면 '집 같은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3층의 '테라스 하우스'는 30대 식물 전문가와 셰프 부부의 집으로 설정돼 있다. 테라스에는 대런 로마넬리의 빈티지 의류로 만든 알록달록한 소파가 세이아 고메즈의 원색적 도시 풍경화와 어우러져 있다. 식당에는 안토니 아롤라의 백색 조명 너머로 서세옥의 흑백 수목추상화가 걸려 있다. 침실 입구에는 피카소의 판화 연작이, 침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추상화가 걸려 있다.



'집 같은 미술관' '미술관 같은 집'을 구현한 경기도 양평 구하우스 미술관 내부.

[사진 구하우스 미술관]

의 컬렉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그 컬렉션이 배치된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가 전환점이 되었다"고 『더어 컬렉터』의 저자인 김지은 아나운서는 평한 바 있다.

컬렉터의 취향을 전면에 내세운 미술관도 있다. "집 같은 미술관, 미술관 같은 집"으로 불리는 구하우스 미술관으로, 국내외 유명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이 디자인 가구와 어우러져 있는 것을 상설로 볼 수 있다. 국내 CI 디자인의 거물이었던 구정순(73) 디자인포커스 대표가 평생 수집한 500여 점의 작품들을 기반으로 2016년 경기도 양평군에 개관했다.

내외트큐브(백색 직사각형 공간)로 일관되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일반적인 미술관 내부와 달리 집처럼 아늑한 느낌이 있는 이곳은 실제로 구 관장의 집, 즉 생활 공간이다. 동시에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윌리엄 켄트리지, 로버트 라우센버그, 막스 에른스트, 데미안 허스트, 어윈 올라프, 서도호 등 내로라 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저기에서 마주치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이 까다로운 공간을 구현해낸 건축가는 조민석 매스스터디스 대표다.

연년 '존 소운 뮤지엄' 부된 건축가도 합류

구 관장은 이 독특한 미술관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담동 빌라에 살 때 넓은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내가 수집한 작품들을 미술관처럼 늘어놓고 지하로 가는 계단 벽에도 수집한 그림을 죽 걸고 농담 삼아 '구하우스 뮤지엄'이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보여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집 같은 뮤지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영국 런던에서 존 소운 뮤지엄(18세기 영국의 이름난 건축가 존 소운은 세계 각국의 고미술품과 유물을 수집해 집에 진열했는데, 그 집과 컬렉션이 그의 사후에 박물관이 됐다)을 보고 집이면서 미술관인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굳혔어요. 마침 조민석 건축가가 존 소운을 보고 화가가 되는 대신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기에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는 또 덧붙였다. "사립미술관을 세우는 사람들은 엄청난 미술사 공부를 하고 그에 맞게 구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 그저 취향의 미술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관람객들이 컬렉터의 집에 초대받아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예술을 즐기는 거죠."

이밖에도 미술작품을 디자인 가구와 함께 배치하는 전시 프로젝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PKM갤러리의 '호르헤 파르도' 개인전의 경우, 조각작품인 동시에 조형이나 가구이기도 한 그의 작품을 집에 놓인 것처럼 배치해 전시했다. 28일까지 '호기심의 캐비닛' 전시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 갤러리 페도랑 2층도 미술작품과 빈티지 가구가 집의 거실처럼 전시되고 있다. 또한 아트페어 주최사인 아트부산은 미술작품과 디자인 가구 및 오브제를 집처럼 연출한 부스에서 판매하는 장터 '디파인 서울'을 2023년 론칭한 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컬렉팅 문화 및 일상과 결합된 예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면서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켄 캐플런의 마켓 나우

미래 이끌 4대 메가트렌드



투자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한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래를 주도하는 4가지 주요 메가트렌드(megatrend, 거대 추세)를 깊게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블랙스톤은 250개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와 소비자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데이터 분석이 파악한 메가트렌드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유망한 투자처를 선제적으로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메가트렌드는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생성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데이터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용량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에 약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배터리 저장 기술, 냉각 시스템, 반도체 집과 같은 관련 산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중요성의 확대다. 향후 10년간 미국의 전력 수요는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은 증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전력망의 교체와 확장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요구된다. 전력 생산과 공급의 안정적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

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세 번째는 가속화되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이다. AI와 머신러닝이 유전학과 유전체학에 적용되면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매년 172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유망한 기술을 갖고도 자금 부족 때문에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혁신적인 의학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고려해볼 시점이다.

네 번째 메가트렌드는 계속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다. 2023년 오프라인 소매업 매출이 2% 성장하는 동안 전자상거래는 무려 9% 성장을 달성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같은 기간 아마존의 당일·익일 배송 서비스 이용률이 70%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 신속한 배송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며 물류, 배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미래를 개척하는 메가트렌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 변화를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생각하고 혁신하며 결단력 있게 투자해야 한다.

블랙스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

조원경의 돈의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애환과 산업재편

중국과 중동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키우자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우리 석유산업의 설비가동률이 하락했다.

산업의 쌀인 에틸렌을 보자. 최대 생산능력을 뽐내는 중국 중선에 더해 중동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중동은 친환경 차량의 내연기관 대체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석유화학을 택했다.

중동의 공법(COTC)은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얻고 이를 분해해 에틸렌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원유에서 에틸렌 같은 기초유분을 직접 생산해 단가를 낮추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때렸던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됐다. 중국에의 10% 추가관세는 발효됐고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에 나섰다.

우리 석유화학업체 중에 중국 자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러시아·이란에서 값싼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우리 기업과 합작해 한국산으로 수출한다면 위험천만하다.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인식하면 한·미 관계에 좋을 게 없다.

'시추하자, 계속 시추하자(Drill, Baby, Drill)'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원 개발 독려 메시지다.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미국 내 규제 완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생각해 본다.

이런 사건이 모여 유가가 낮아지고,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나. 정부는 자율적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 분해 시설을 팔고, 합병도 하고, 고

부가가치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은 물론이거니와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도 정부도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alaxy Realty featuring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tor named Rori Jeong.

Advertisement fo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highlighting services for pain relief and rehabilitation with contact details and a list of qualifications for the therapist.

# 집 있으면 '로또 줍줍' 못 한다... 위장 전입도 원천 차단

##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지난 6~7일 직장인 점심시간 최대 화두는 '줍줍 막차'였다.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때문이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3억원"이라는 소문에 전국에서 로또 사듯 신청이 쏟아졌다. 이 단지 3가구 모집에 무려 120만 명이 몰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해 2월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했었다"며 "당시엔 101만 명이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살고 청약 점수도 낮아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대로 써보고는 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 기대는 안 한다"고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



### 무주택·거주자에 유리해지는 무순위 청약

예)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

현재	국내 거주 성년자 누구나 청약 가능
변경	국내 거주 성년자 중 무주택자만
강남구청장이 ①서울 거주자 ②수도권 거주자 ③거주 요건 미부과 중 선택	

도를 올 상반기 중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청약 시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가 적은 경우를 없도록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용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한이 없었던 거주 요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광역자치체 ▶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 미부과(전국 단위 분양) 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라면 강남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살펴 서울시민 혹은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거주 요건 없이 국내 거주자 전 부로 열어도 될 수 있다. 다만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지역 '표심 관리'용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구·군 단위가 아니라 광역자치체 단위로만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1:2 순위 청약을 모두 진행한 뒤에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가점이나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시장에서 수확이 끝난 뒤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것에 빗대어 '줍줍', 청약 점수가 없어도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에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전용 84㎡ 1가구에 신청자 294만2780명이 몰렸다. 인천시 인구나 맞먹는 규모다. 접속자가 너무 많아 청약홈 서버까지 마비됐다.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당첨자 중에 높은 연봉과 성과급으로 유명한 대기업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더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또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당첨되는 일이 없도록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은 과거 3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과거 1년 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고령자나 큰 병을 얻어 상급의료 기관에 가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규칙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 기자

## 집값은 고차방정식 '성·금·공' 변수 읽어야

(성장률·금리·공급)

모든 시장이 그렇듯 부동산 시장도 복잡다단하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얽히고설켜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원 방정식이다. 여쭙 보면 세상에 단순 도식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 그래서 변수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석적 시각과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다.

먼저 거시경제. 부동산은 그나라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부동산 가격은 그나라 경제가 좋으면 오를 것이고 나쁘면 내릴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경제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관계에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도식은 빗나갈 수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계량 기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는 1%대 중반(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1.7%)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집값도 크게 떨어질까.

결론적으로 경제적 위기로 역성장을 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 하락만으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집값의 하락 요인이지만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해 집값을 전망할 때 거시경제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것만으로 예단하면 착오

를 부를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금리를 낮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집값이 오르는 현상(화폐적 경기순환론)도 자주 나타난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시장 분화 현상이 강해 지역마다 집값 흐름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라면 통화량(M2)이나 금리, 대출 규제 등의 금융변수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낫다. 다만 조선이나 중공업이 특화된 지방 공업도시에선 지역경제 흐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수요 성격이 강해 경기 호조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살아야 집값도 오를 수 있다(실물적 경기순환론).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택시장도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적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000가구 정도로 지난해(3만7000가구), 10년 평균(3만8000가구)보다 1만 가구 정도 많다. 입주 물량만으로 따질 때 올해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이 늘어나므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시장은 투기적 수요 없이 현재의 수급만을 반영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계 분석 결과 특정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면 입주일로부터 3~6개월간 집중적으로 충격이 준다.

하지만 인접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

어 서울 전세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세 수요가 이동할 수도 있어서다. 매매시장은 전세시장보다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시 입주 물량 외에도 정치 경제 환경이나 개인의 미래 기대, 손실 회피, 처분 효과 등 심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늘어나는 상경 투자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 물량의 변화만으로 집값을 예단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가계 부채도 한번 보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 부채를 추정하면 국내 가계 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위태로운 것은 맞다. 하지만 가계 부채가 많다고 집값이 이제 내려갈 날만 남았다는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 가계 부채 발 집값 급락설은 2010년대 초반 800조원일 때부터 나왔다. 2025년 현재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서울지역에선 2~3배 올랐다.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무시하지는 것은 아니다.

가계 부채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다. 야외 활동 중 갑자기 기온이 크게 내려가거나 무리를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잘 관리를 하면 자연 수명을 누릴 수 있다.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처럼 큰 악재가 터지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돌발적인 쇼크가 금



입주 물량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사진은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초대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 [연합뉴스]

세 닦칠 수도 있고, 한참 있다가 올 수도 있다. 한국 경제의 복병인 가계 부채는 주택시장의 위험 요인이지만 반드시 곧바로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동안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설이 나돌면서 집값이 급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위기설은 두루뭉술하게 바라보기보다 그 실체를 면밀히 해부할 필요가 있다. PF 문제와 기존 주택시장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보다 간접적인 관계이다. 말하자면 두 시장은 한 다리 건너서 존재한다. PF 문제로 집값이 급락하려면 건설사나 시행사의 대량 부도 사태가 터져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시중 금리가 크게 올라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던 2011년 부산 아파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6.5% 올랐다. 공기업이 대거 들어선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PF 부실 사태를 압도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PF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전국과 서울 아파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각각 1.93%, 8.31%(1~11월, 한국부동산원)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금리 문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구간에서 이런 생각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집값 하락 심리가 팽배할 때는 '금리 인하 = 집값 상승'이라는 등식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낮췄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실거래가 기준(1~11월)으로 0.91% 떨어졌다. 지역경제 여건이 금리 인하보다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제 여러 변수를 종합해 스스로 전망을 해보자. 내가 분석가라고 가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변수를 조합해보자. 여러 변수 가운데 핵심 변수에 무게중심을 두고 부차적 변수는 줄이는 분별력도 중요하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가늠되지 않을까 싶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 MD Ellicott City

#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 443-759-9798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2월 **HOT** 리스팅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한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주택 매매 / SALE



애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임대**

비엔나 겔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임대 주택, 상업용 건물 관리 해드립니다.**

세입자와 분쟁처리 / HOA 와 문제 처리

페어팩스 시티 + DC + MD 카운티 임대 면허증 + 인스펙션 통과해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해리 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새 비즈니스 모델

전기차 충전소·카페 투자자들 관심 집중  
소규모 피클 볼 카페 수익 모델로 급성장

2025년,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트렌드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두 가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도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트렌드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를 융합한 모델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단순한 충전의 기능을 넘어 15분 정도의 충전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 샌타 애나에 위치한 로브(Rove)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약 1에이커에 달하는 공간에 태양광 패널 지붕, 4세대 테슬라 슈퍼차저 등 초고속 충전기, 24시간 운영되는 카페, 편의점 시설이 있다.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를 융합한 이러한 모델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사례로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은 피클 볼 카페다. 피클 볼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비교적 적은 공간과 투자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피클 볼 카페

는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소셜 네트워킹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캘리포니아 샌호세에 오픈한 더 허브(The Hub)는 16개의 실내 코트를 갖춘 대형시설로 바와 레스토랑, 피트니스 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치킨앤피클(Chicken N Pickle)은 현재 전국에 15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단순한 피클 볼 코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음료, 이벤트 공간까지 포함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자리 잡았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스매시 드링크(Smash Dink)는 소규모 피클 볼 코트다. 이곳은 피클 볼 코트 대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슨과 소규모 이벤트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낮은 초기 투자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된다. 피클 볼 카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비어 있는 상가 공간에 적은 비용으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피클 볼 코트를 대여하는 수입뿐만 아니라 멤버십 수익과 음식 및 음료 매출이라는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잠재적 수익성을 보장한다.



렉스 유  
CBRE Korean Desk 대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전략

예산 초과 방지 위한 현실적 계획 필수  
리스크 대비가 곧 성공 투자로 연결돼

부동산 투자의 꽃은 부동산 개발인 만큼 많은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기존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개발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첫 단계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구매하기 전, 해당 지역의 zoning(지역) 규제를 검토하고, 투자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zoning이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시 정부와 협상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증가, 경제적 성장 가능성, 경쟁 부동산의 상황 등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큰 수익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만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1. 예산 초과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공사 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충분한 예비 자금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공사 지연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 추가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완공 후 예상되는 수익 흐름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과거 실적과 신뢰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입주자 확보  
개발이 완료된 후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입주자입니다. 공사 초기에 입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리스 또는 분양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시공, 마케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완공 후의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파트너와 협력하면 예산 초과, 일정 지연, 입주자 부족 등 주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후,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장 상황, 투자 목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국 부동산

2025년 10가지 예측

2025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건설을 촉진해 주택 공급 증가로 기존 주택 가격 인상의 안정에 꺾일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당량의 원자재에 높은 관세를 크게 물리게 되면 임금 상승과 주택 건설을 위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바이어에게 돌아갈 것 같다.

캘리포니아와 LA 모기지 시장은 금리 상승과 주택 경제성 약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방향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또한 서류 미비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 미비자와 불법체류자들 추방 정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러 가지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부분에서 많은 약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어들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계획은 각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와 셀러 간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주택 시장은 형성되고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주택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레드핀은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보다 렌트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10가지 예측 내용을 보면 첫째, 주택 가격이 약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약 7%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셋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24년도보다 주택 매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네 번째, 렌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건설 규제 감소로 주택 건설이 증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셀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수수료 감소에 따라 주택 매매에 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 번째, 새 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간의 합병 및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중개업체들의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여덟 번째, 위험한 기후 변화로 인해 특히 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의 개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홉 번째, 블루티티들의 자율 주행 차량과 더욱 세밀화된 버스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이다.

열 번째, Z세대들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영향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주택 구입은 인생의 중요 순위에서 1순위가 안 될 수 있다.

위성 도시로 인프라 확장 추세로 고속 전철도 구간마다 공사를 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택 구입을 계획하기에는 발렌시아, 팜데일, 랭캐스터는 아직 바이어들의 희망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 시장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동에 주택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이어나 셀러 모두 각자의 재정 상태와 경제 구조에 맞춰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REALTY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투책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Germantown MD 타운홈 방3, 화3.5	 COMING SOON Bethesda MD 싱글홈 방4, 화2/1	 COMING SOON Woodlawn MD 싱글홈 방4, 화3
 COMING SOON Elkridge MD 타운홈 방4, 화3/1, 차고1	 COMING SOON Nottingham MD 싱글홈 방3, 화2	 COMING SOON Columbia MD 타운홈 방3, 화2/1, 차고1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RENTED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	---	---	--	---	--



# 변우석 팬미팅 티켓이 235만원... '매크로 암표상' 선 넘었다

(자동 예매 반복 프로그램)

5일 한 클래식동호인 카페에 '암표 신고할 수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12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경기필의 협연 티켓을 못잡은 한 팬이 정가 8만원 짜리 VIP티켓 상당수를 암표업자들이 당근마켓에서 40만원에 팔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지난해 5월 70대 모친을 위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A씨도 정가 18만7000원 짜리 티켓을 80만원에 샀다. 7월에 '선재 업고 튀어'로 상종가를 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에 갔던 B씨는 7만7000원짜리 티켓을 사기 위해 235만원을 썼다.



최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업자들의 매점매석 때문에 인기 공연의 정상적인 티켓 예매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최근 암표상들의 타겟이 됐던 조성진, 임영웅, 변우석(왼쪽부터).



(중앙포토)

'티켓플레이션'에 요즘 공연팬들은 호구 신세다. 뮤지컬 티켓 최고가가 20만원에 육박하는 등 정가도 비싸졌지만, 더 큰 문제는 정상적인 예매처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인기 티켓을 사재기하는 암표상 탓이다. 야구장 가기도 힘들어졌다. 지난해 정가 3만5000원짜리 한국시리즈 티켓도 2~6배 값을 치른 사람이 많았다. 코로나 이후 공연·스포츠 시장이 살아났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거쳐야 티켓을 살 수 있다. 아티스트나 기획사 수익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유통마진'만 커진 셈이다.

지난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긴 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매크로 사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암표 근절은 요원한 상태다. 지난해 검거된 암표상 중에는 한 공연에 1억원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2016~2023년 국내 공연 티켓 매출액은 6107억원

## 공연법 개정됐지만 암표 근절 아득 매크로 사용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임영웅 티켓 80만원 '울며관람하기'

에서 1조2000억원으로 2배 정도 커진 데 비해 티켓·상품권 피해 사례건수는 5165건에서 3만8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중고거래 사기 피해 1위도 티켓·상품권 차지다. 온라인 개인간 직거래로 인한 사기·폭력·편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K팝 팬들의 피해까지 늘고 있다.

암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춘석 의원 등이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모든 형태의 티켓 재판매를 금지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지난해 아이유 콘서트 당시 친구 도움으로 산 티켓을 부

정 거래로 의심받아 표를 몰수당한 팬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선급하게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시장 음성화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에 더 크게 노출되고,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재판매나 양도를 막는 건 소비자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2차 시장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 신뢰성과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단순 금지보다 2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사후 구제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해외 사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등 주요국 대부

분이 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해 티켓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의 경우 과거 티켓 재판매를 전면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음성 거래가 확산되자 규제를 철회했다.

암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 및 재판매할 경우 최대 1500달러(약 217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일본은 판매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불법 판매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캐나다는 위반 시 벌금 5만 캐나다달러(약 5000만원) 또는 2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

덕분에 세계적으로 2차 거래는 양성화 추세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그로스마켓리포트(Growth Market Reports)는 2019년 약 15.6조원이었던 글로벌 2차 티켓 거래 시장 규모가 2027년 약 3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와 유럽이 세계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스타트업-티켓마스터-비아고고 등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

중이다. 한국도 2차 티켓 거래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려면 공인 플랫폼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상한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실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인 남기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티켓 재판매에 있어 허용과 금지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과 범위를 정해 관리·감독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면서 "재판매업 라이선스 부여와 사업자 주의 의무 강화, 환불정책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투자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과 뉴욕 레드볼 아레나는 블록체인 티켓 솔루션 도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하이브가 이번달 투어스 팬미팅부터 얼굴인식 기술인 '얼굴패스'를 적용한다. IT전문 변호사인 구태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티켓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이상 매크로를 방지하는 방어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R&D 지원과 모태펀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술을 채택한 예매 플랫폼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먼저 이용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암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한정호 공연평론가는 "블록체인 티켓이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긴 하지만 해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라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사용자 윤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주현 기자

# 호랑이 없는 '호랑이 텃밭'... 임성재가 노린다

##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오늘 개막 우즈 8회 우승 토리파인스서 열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 달러)이 오늘(13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장 남코스에서 개막한다.

지난 8일 대회 출전의 소식을 밝혔던

타이거 우즈(미국)는 11일 이를 반복하고 출전을 포기했다. 우즈는 토리파인스에서 유난히 강했는데, 2008년 US오픈 등 8차례나 우승했다. 지난 5일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우승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뒤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우즈는 "어머니가 출전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슬픔이 다 가지 않았"고 발표했다.



임성재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김주형·안병훈·김시우가 출전한다. PGA투어 측은 홈페이지에서 임성재를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폴린 모리카와(미국)에 이어 우승 후보 3위로 꼽았다.

임성재는 2022년 이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네 번 출전해 톱10에 세 번 들었다. 지난달 토리파인스에서 열린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는 공동 4위였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보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임성재에게는 유

리하다. 소수 정예가 출전하는 시그니처 대회에 더 강하다. 또 남코스가 더 길고 어려워 선수 평균 스코어가 나쁜데, 임성재는 남코스에서 더 잘 쳤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선 남북 코스를 번갈아 치지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남코스에서만 경기한다.

임성재는 지난달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직후 "토리파인스 남코스는 롱게임을 잘해야 하는 코스이며, 내 장점은 롱게임이라서 나한테 잘 맞는다"고 말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put away; (구어체) 먹어 치우다

Four roommates are talking after having dinner.

(룸메이트 4명이 저녁식사후 대화하고 있다.)

David: Ken, those hamburgers were great.  
데이비드: 켄, 햄버거가 정말 맛있었어.  
Brian: Yes, they were.  
브라이언: 그래, 맛있었어.  
Ken: Thanks.  
켄: 고마워.  
Steve: I was so hungry I put away two of them.  
스티브: 난 너무 배 고파서 2개나 해치웠어.  
David: There's a little more potato salad left. Any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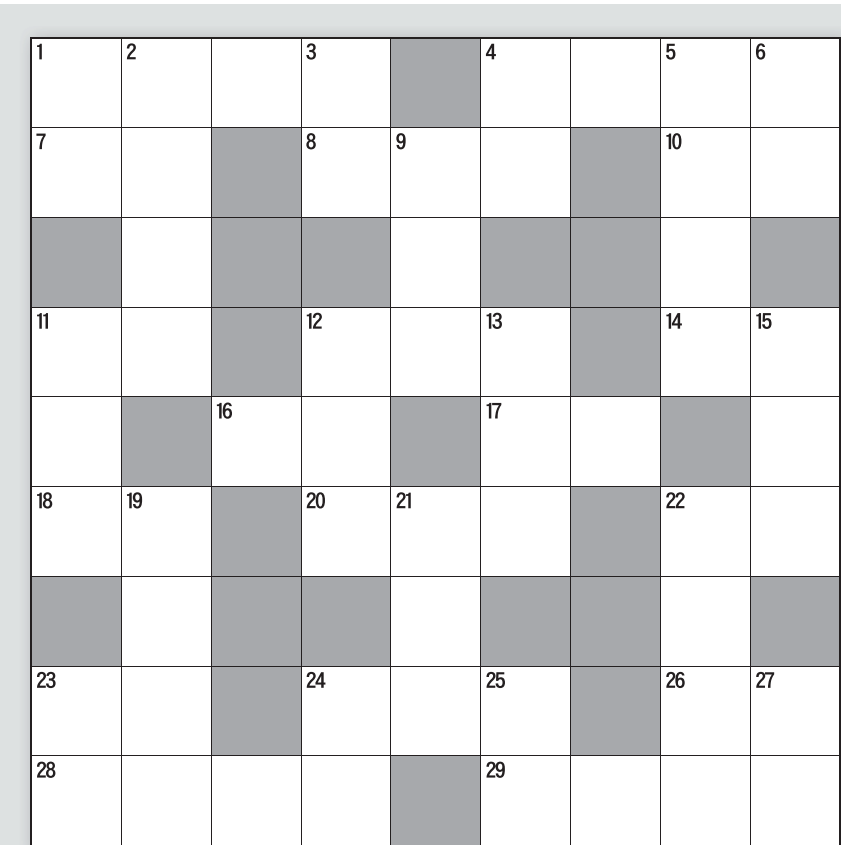
want to finish it off?  
데이비드: 감자 샐러드가 조금 남았는데, 누구 먹어 치울 사람 있어?  
Brian: I'll take it.  
브라이언: 내가 먹을게.  
Ken: All right guys let's clear the table.  
켄: 자 그럼 식탁을 치우자고.  
Steve: I'll do the dishes if somebody will dry.  
스티브: 설거지는 내가 할테니까 물기는 누가 닦아.

Brian: I'll dry the dishes.  
브라이언: 내가 닦을게.  
David: I'll have some coffee and watch all of you work.  
데이비드: 나는 커피나 좀 마시면서 너희들 일하는 거 지켜봐야겠다.

(어젯밤에 피자를 두 판이나 먹어치웠어.)  
▶ clear the table: 식탁을 치우다.  
"Let's clear the table so we can play poker."  
(포커게임하게 식탁을 치웁시다.)  
▶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I have to do the dishes before I go out."  
(외출하기 전에 설거지를 해야 돼요.)

기억할만한 표현  
▶ finish off: (also finish off something) 다 먹어 치우다.  
"We finished off two pizzas last night."

날말퀴즈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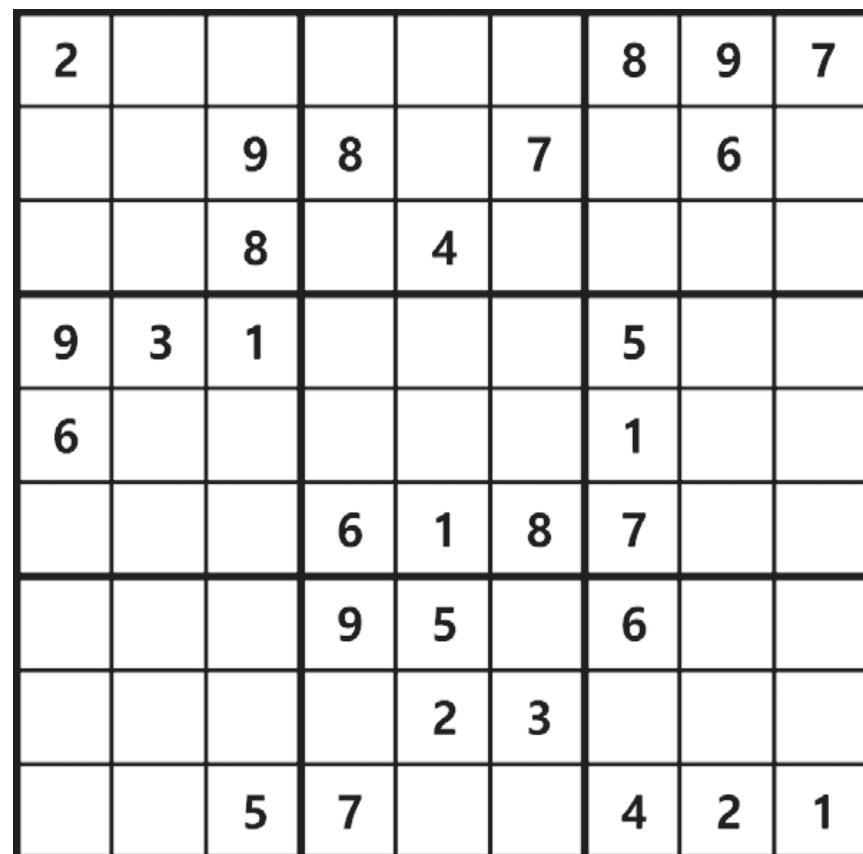
(1)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만□  
(4)지계미(조)와 쌀겨(강)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야채. 몸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 자네, ~를 버젓이 두고 바람을 피운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네 (7)환자의 신체를 두드려서 진찰하는 방법 (8)빈틈없이 아주 여주진 사람. ~는 못 되더라도 반겨들충이는 되지 않아야 하는데 (10)한 나라의 수도 이외의 지역 (11)두 개가 쌍으로 되어 있는, 명태 등 생선의 알주머니 (12)조직 내에서 주체성 없이 무사안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14)한국 프로 ~ V리그 흥행을 이끌었던 김연경이 다시 국외 리그로 떠난다고 하죠 (16)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 소맷자락만 스쳐도 ~의 인연이라고 한다 (17)콩으로 만들며, 한 모 두 모 이렇게 세조 (18)임금의 열굴 (20)꽃줄기가 길게 나와 백합 비슷한 등황색 꽃이 핀다 (22)참쌀·수수 등을 재료로 하는 한국 고유의 떡 (23)호박, 가지 등을 썰어 말린 것 (24)아주 야단스럽고 부산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짓 (26)벗 (28)언 발에 오줌 누기.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곧 없어짐 (29)집을 지을 때, 뒷

자리를 잡을 때 등에 김홍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론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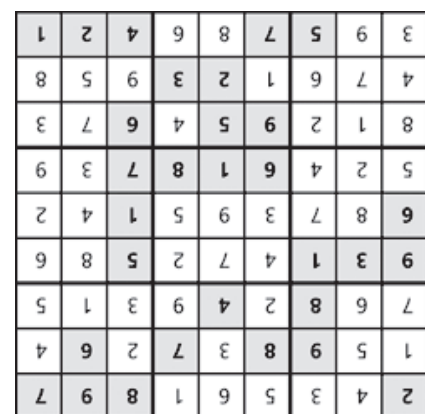
(1)6개의 현을 갖고 있으며,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죠 (2)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 (3)아내의 어머니 (4)쌀을 이는 데 쓰는 기구 (5)종다리나 제비 따위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 (6)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9)사람을 흘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11)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12)도량이 좁고 성질이 좁스러우며 웅졸한 사람 (13)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는 관 (15)곰셈에 쓰는 기초 공식 (19)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 □분□□ (21)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국 (22)하늘(천)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 세상을 몸시 놀라게 함 (23)신호를 하기 위하여 길게 내는 기적 따위의 소리. 부두 끝에서 여객선이 ~을 울리며 떠나고 있었다 (24)퐁과 오줌. 외양간에 들어가 소의 ~를 채내고 새 짚을 깔아 주었다 (25)몸시 빠르고 거세게 부는 바람 (27)여럿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2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들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 흙침대 100% 생향토

sale

sale

\$2,900 \$2,300 \$3,000 \$2,500

## 장운정의 휴표 흙 침대

휴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돕는 찜질 효과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 휴표 흙 매트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 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 월턴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킹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kg 가벼운 체우고 따르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1740엔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심, 관상동맥 질환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어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용 매트

2020년 최우수 브랜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www.ebluu.com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총 \$1,500 상당의  
10" 태블릿 5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bluu™ Tab Order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퀵서비스 레스토랑

## 레스토랑 테이블 사이드 주문 서비스의 혁신



### 편리함

손님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문 실수 감소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함으로써 잘못된  
주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식사 시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고객 경험 향상

편안한 환경에서 주문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8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CSM@ebluu.com

2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Super Service Award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 라돈 가스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20년 전문!!

- ▶ 신속
- ▶ 안전
- ▶ 신용
-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찌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융자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꼭지 교체</li> <li>◆싱크/디스포저</li> <li>◆워터히터/물새는것</li> <li>◆하수막힘/변기교체</li> <li>◆씽폼 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루핑수리/거리교체</li> <li>◆사이드 리페어/창문</li> <li>◆데크 수리</li> <li>◆드라이얼/페인트</li> <li>◆파워워시</li> </ul>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멸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Nation Wide



#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알래스카 식당 양식부**  
(아침잘 하시분 우대)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907)545-1451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급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RENT  
부동산

미국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양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 지긋지긋한 3차 신경통과 증풍치료로 기적을 경험하다!

**"증풍과 3차 신경통,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증풍으로 마비됐던 뱀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그는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갑작스러운 증풍으로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했던 그는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을 찾았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증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침, 뜸, 약물 치료 등 6단계 치료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뱀허노 씨는 치료 후 틀어진 목이 반듯해지고, 통증과 언어 장애가 개선되었으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3차 신경통 치료도 전문으로 한다. 3차 신경통은 얼굴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 질환으로, 말하거나 씹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서 박사는 "한방 치료를 통해 신경 압박을 해소하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풍과 3차 신경통 치료의 핵심은 기혈 순환을 돕고 혈전을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증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뱀허노 고메즈 씨.

제거하는 것이라며, 심혈관 치료를 위한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함께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풍 예방을 위해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문의: (213) 385-3304  
▶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증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뱀허노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담임목사 및 부목사 청빙**  
나성교회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와 부목사 각각 1인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

- 정규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
- 미국에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가족소개서(사진포함)
- 신앙 고백서
- 목사 안수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 추천서 3장
- 최근 6개월내 설교 CD/DVD/MP3 2회분

**기타 사항**

-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oad  
La Habra Heights, CA 90631

**특점 FAIRFAX 콘도**

탑 플로어, 엔드 유닛, 큰 사이즈, Loft, 방2, 화장실2, 완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예쁜 콘도, 코스트코와 페어팩스를 가까움

**\$ 450,000**



**Sold**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 710,000**



**Contract**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장실3,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새 마루, 새 페인트, 리모델링한 부엌, 리모델링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밝고 환한 타운하우스

**\$483,000**



**Sold**

**특점 Fairfax 오피스**

새 창문, 새 페인트, 잘 관리된 밝고 환한콘도, 높은 천장, 탁트인 구조, 넉넉한 주차장

**\$265,0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